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女性の頭皮・毛髪 状態와 管理 實態에
關한 研究

2010年



HANSUNG
UNIVERSITY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申 玉 南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崔昞姬

女性の頭皮・毛髪 状態와 管理 實態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reatment of
Scalp and Hair in the Women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blue 'H' shape. To its right, the words 'HANSUNG UNIVERSITY' are written in a light blue, sans-serif font, with 'HANSUNG' on the top line and 'UNIVERSITY' on the bottom line.

2010年 0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申 玉 南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崔 昞 姬

女性의 頭皮·毛髮 狀態와 管理 實態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reatment of
Scalp and Hair in the Women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blue 'H' shape. To its right, the words 'HANSUNG UNIVERSITY' are written in a light blue, sans-serif font, with 'HANSUNG' on the top line and 'UNIVERSITY' on the bottom line.

2010年 0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 티 藝 術 學 科

헤 어 디 자 인 專 攻

申 玉 南

申玉南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0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 3 절 연구문제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두피·모발의 기능	5
제 2 절 두피·모발 유형별 손상 원인과 관리	9
제 3 절 탈모관리	21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26
제 1 절 연구대상 및 기간	26
제 2 절 측정 도구 및 자료수집	26
제 3 절 자료 분석	26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28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
제 2 절 두피·모발상태	29
제 3 절 두피·모발 관리실태	33
제 4 절 두피·모발손상에 대한 인식	44
제 5 절 탈모관리 실태 및 인식	5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4
제 1 절 요약 및 결론	64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65

【참고문헌】	67
【부 록】	71
ABSTRACT	78



<표 목 차>

[표 1] 탈모의 분류	24
[표 2] 설문지의 구성	27
[표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
[표 4] 두피 상태	30
[표 5] 모발 상태	32
[표 6]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는 이유	34
[표 7] 퍼머, 염색, 탈색 시술 후 부작용 경험	36
[표 8] 미용실 이용 주기	37
[표 9] 퍼머, 염색, 탈색 후의 트리트먼트	40
[표 10] 사용하는 샴푸제	41
[표 11] 샴푸 후 모발 건조 방법	43
[표 12] 두피·모발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시술	45
[표 13] 모발의 건강유지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47
[표 14] 두피·모발 클리닉 인식여부	49
[표 15] 두피·모발 보호 및 재생전용 화장품 사용여부	50
[표 16] 탈모 상태	52
[표 17] 탈모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53
[표 18] 두피·탈모관리 경험여부	55
[표 19] 연령별 가장 만족한 관리 서비스	57
[표 20] 연령별 불만족한 관리 서비스	58
[표 21] 두피·탈모관리 장소	59
[표 22] 연령별 두피·모발 관리 인식도	61
[표 23] 결혼 상태별 두피·모발 관리 인식도	62

그 립 목 차

<그림 1> 두피 상태별 분류	12
<그림 2> 세정제 및 세정 방법에 따른 두피 상태 비교	15
<그림 3> 열에 의한 손상모(좌), 마찰에 의한 손상모(우)	17
<그림 4> 커트에 의한 손상모	17
<그림 5> 퍼머제에 의한 손상모	18
<그림 6> 탈모 진행에 따른 모근 변화	22
<그림 7>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는 이유	35
<그림 8> 미용실 이용 주기	38
<그림 9> 모발의 건강유지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중 중요한 것	48



HANSUNG
UNIVERSITY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는 자기 관리 시대로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모발은 자신의 개성과 심리를 표현하고 아름다운 매력을 표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활용 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미적 요소로서 모발이 현대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치우쳐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본질인 건강한 측면을 가볍게 여겨온 결과 모발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아름다움 추구에 대한 욕구에 의해 미용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기술과 많은 제품들이 개발 되었지만, 이러한 열기구와 화학제품의 과도한 시술과 잘못된 사용습관으로 인하여 두피·모발의 손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들의 건강한 두피·모발 관리와 유지의 욕구는 최근의 웰빙(well-being) 트렌드에 맞추어 과거의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 보다는 건강한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건강한 아름다움을 다시 찾고 새로운 미(美)의 가치 창조에 나서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¹⁾.

아름다운 모발은 인간의 개성과 외모적 자신감, 다양한 분위기 등을 표현해 주는 미(美)의 또 다른 요소가 되며 두피·모발의 손상이나 심한 탈모의 경우 형태(form), 질감(texture), 컬러의 변화를 통한 헤어스타일 연출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아름다운 모발은 건강한 두피에서 비롯됨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동안 헤어연출에 편중되었던 사람들의 관심이 모발의 건강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 결과 두피·모발 관리는 미용 산업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최근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1) 이방실, 「두피·모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2

모발을 이용하여 색을 바꾼다든지 길이를 변화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커트를 하는 예가 많아지면서 모발의 장식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이에 따른 모발의 손상 또한 심해져서 건강한 모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발은 여러 물리 화학적인 자극으로 인해 손상되면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다만 잘라냄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모발이 그만큼 다시 성장하려면 상당기간이 요구되는데, 현대인들은 자연 그대로의 생머리보다는 퍼머넌트 웨이브, 염색·탈색 등의 시술로 자신의 미를 표현하고자 하므로 손상 없는 건강한 모발을 간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²⁾.

두피·모발 관리란 두부(頭部) 피부의 청결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미용적 시술로서 일상적인 샴푸나 두피 클렌징, 양모제 처치를 포함하며 기타 의료기기 이외 도구를 이용하여 두피의 문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인체에서 두피 및 모발은 성별에 따른 나이와 환경, 섭취하는 영양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두피 관리 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에 따른 제품의 응용방법과 인체의 생리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마사지를 위한 중요한 기초지식 뿐만 아니라 상담 고객에 따른 시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³⁾

급속한 다변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대 문명의 발전과 문화적 여건 속에서 사회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환경오염과 과도한 스트레스,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우리 몸의 불균형에서 오는 두피·모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피 관리는 모발성장에 장애가 되는 모공 주변에 쌓인 피지나 이물질, 노화각질 등 샴푸로도 잘 세정되지 않는 잔여물을 스켈링 제품이나 기자재를 이용해 제거하여 외부로부터의 영양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내부에서는 분비되는 피지가 제대로 분비되어 탄력 있고 윤기 있는 모발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⁴⁾

여성의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는 고대 이집트시대나 오늘날에나 변함이 없다.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2) 윤천성 외, 『모발과 두피관리』, 서울: 훈민사, 2004, p.83

3) 오강수, 「두피 및 모발관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2

4) 윤주화, 「한국 여성의 두피 및 모발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향장 미용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p.1

이어져 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특히 모발 및 두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자연에서부터 모발변형을 가져와 헤어스타일을 표현했던 고대시대에 비해 오늘날의 경우에는 화학적 제품을 통한 인위적인 변형으로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 및 인체에도 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모발은 화학적 제품에 의해 변형이 자유롭지만, 그에 따른 모발 손상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특히, 퍼머나 염색 등으로 인한 모발의 손상은 두피에도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이상탈모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발을 원하지만 피부가 다르듯이 모발 또한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유전적인 영향 이외에도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탈모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소비자의 탈모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 중 특별히 두피·모발 관리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에 관심이 많은 2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두피·모발 상태 및 관리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발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피의 건강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두피·모발 관리의 올바른 방법과 필요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통해 탈모로 인한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올바른 관리 습관을 제안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두피·모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자는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직장인, 주부, 서비스업, 자영업,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는 총 450부를 배부하여 424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불충분한 21부를 제외한 40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 방법으로는 여성들의 두피·모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과, 두피·모발 상태 및 관리실태, 그리고 두피·모발 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비조사 실시 후 본 조사로 실시되었다.

제 3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두피·모발 상태, 탈모 등에 대한 관리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고, 연령대에 따라 두피·모발 상태 및 관리 실태에 의한 차이점을 분석하여 두피·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여성의 두피·모발 상태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여성의 두피·모발 관리 실태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연령대에 따라 두피·모발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연령대에 따라 두피·모발 관리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HANSUNG
UNIVERSITY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두피 · 모발의 기능

1. 두피(scalp)의 기능

우리의 신체는 저마다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움직이며 그 중 두피는 각각의 기능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두피는 서로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기능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기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두피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간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모주기에 영향을 끼쳐 이상탈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⁵⁾

두피에는 혈액과 림프액이 골고루 순환하면서 피부 내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한다. 피하조직에는 혈액과 림프관 조직이 좀 더 작은 가지와 돌기, 모낭, 피부 샘에 뻗어 있다.

1) 보호의 기능

피부는 인체의 내부 장기와 외부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이다. 과도한 마찰이 생기면 피부는 두꺼워지고 보호 작용을 위해 굳은살을 형성한다. 질병을 유발하는 이물질, 상처, 박테리아 등으로 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피부가 알칼리성이 되면 저항력이 약해지고 세균의 번식에 의해 피부병이 생기기 쉽다. 피부의 pH는 땀과 피지에 의해 결정되며, 두피는 pH 5.5~6.5의 약산성이다.

2) 비타민 D의 합성기능

비타민은 몸 안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유기체에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D가 저절로 생성된다.⁶⁾

3) 체온 조절 기능

피부는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외계에 대해 기온이 높거나 운동 후

5) 윤천성 외, 『전계서』, p.30

6) 김영숙, 『두피 모발 관리학』, 서울: 대경, 2005, p.55

체온이 상승하면 동맥이 확장되어 혈류가 다량 흐르게 되면서 열이 증가한다. 반대로 외계온도가 내려가거나 체온이 떨어지면 동맥이 수축하게 되고 다량의 혈류는 심부 피부혈관으로 순환한다.

이러한 작용에 의해 열손실이 방출되는 것을 줄이게 되며 건강한 신체의 내부온도는 37° 정도를 유지한다. 피부의 혈액과 땀샘은 바깥 온도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조절되며 피부의 체온 조절 기능은 시상하부에서 자율 신경을 통해 체온을 유지시킴으로서 주위 환경으로부터 발한의 증가 및 억제로 관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4) 호흡 기능

피부조직 내의 신진 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탄산가스를 피부를 통해 외부로 내보내면서 소량의 산소를 받아들인다. 이는 피부로부터 독소를 배출하여 혈액을 맑게 해 줌으로써 표정을 밝게 하며 동시에 피부도 약간의 호흡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5) 흡수 기능

피부지방과 같은 지질이나 입자가 미세한 에멀전(emulsion), 다양한 약제, 화장품 및 기타 제제의 경피 흡수 등은 각질층, 세포간, 표피부속기를 경유하여 피부상태에 따라 피부내로 흡수된다.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친유성 물질은 흡수가 잘 되며 피부의 습도, 온도상승 시 또는 피부의 pH가 약산성일 때 흡수가 더욱 쉽다.

6) 저장 기능

피하 지방 조직은 영양소 저장 및 신진대사의 기능을 가졌으며 에너지원인 지방을 저장하고 피부에 도포한 약제 또는 유용성 물질은 각질층에 저장된 후 서서히 흡수된다. 또한 수분 저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⁷⁾

2. 모발(hair)의 기능

일반적으로 신체에 난 털을 모두 통틀어 모발(毛髮)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특

7) 김영숙, 『전계서』, p.57

히 머리부위에 난 털을 두발(頭髮)이라고 하며 그 외 신체에 난 털을 체모(體毛)라고 한다. 이러한 모발의 기능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모근에 분포된 지각신경으로 인하여 어떠한 자극에 대해 즉각 반응할 수 있게 하고, 체내에 흡수된 수은이나 납 등의 중금속을 배출한다.⁸⁾

모발은 외부로부터 물리적 충격이 가해질 때 두부(head)를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감각기능, 배설기능, 상징적 기능, 장식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모발의 형태는 의상과 함께 자기 이미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발은 피부에서 형성된 조직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의 기능을 가진다.

더위나 추위는 물론 마찰의 충격을 완화해 주며, 눈썹은 땀의 흐름을 유도하고 속눈썹과 코의 털은 먼지나 이물질을 막아 점막을 보호해 준다. 또한 신체에 유해한 비소, 수은, 아연과 같은 중금속을 배출하는 기능도 있다. 이러한 본원적인 기능 외에 장식적 요소로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는 크고 높을수록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장식과 동시에 햇빛으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로 가발을 대신했다.⁹⁾

동물에게 있어 털의 주요 기능은 보온의 기능이다. 인체에 있는 털도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호의 기능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눈썹은 눈 속으로 땀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속눈썹은 먼지를 막아주고, 코털은 먼지를 거르는 작용이 여기에 속한다. 그 밖에도 모발은 머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외부 충격이나 자극에 대해 완충역할을 해주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아준다.

개성이 중요시 되는 요즘은 개인적인 장식기능이 모발의 주요기능으로 점차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¹⁰⁾

1) 보호 기능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뇌에 대한 이중, 삼중의 보호 장치가 두피와 모발이다. 뇌에 충격이 가해져도 일단은 그 충격을 덜어주고, 다음으로 두피가 그 충격을 흡수해 버린다. 자외선처럼 강한 열이나 빛물, 먼지, 살을 에는 추운 바람등도 직접적으로 뇌에 닿지 못하도록 일차적으로 모발이 두피를 보호해주고 두피가 다시 뇌를 보호

8) 김민정 외, 『모발 및 두피관리』, 서울: 도서출판 예림, 2005, p.18

9) 서윤경, 『모발과학의 기초』, 서울: 도서출판 예림, 2008, p.1

10) 이의수, 『모발과학』, 서울: 도서출판 현문사, 2005, p.5

해준다. 두피의 털이 퇴화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발은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과 동시에 태양광선에 의한 열과 추위에서 뇌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모발은 외부의 기계적 자극에 대한 쿠션역할로 두부를 보호하는 작용과 추위 또는 더위에 보온 작용의 역할 등을 한다. 속눈썹은 눈으로 땀이 흘러 들어가는 것과 이물질(먼지, 벌레등)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코털 귀털 등도 역시 분진이나 벌레의 침입을 막는 본래의 기능을 한다.

2) 감각 전달의 기능

두피 밖에 존재하는 모간부는 스스로의 세포분열 능력이 없는 죽은 세포로 모반 부위만을 볼 때는 감각이 없는 실과 같지만 모근부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지각신경에 의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우리의 인체가 반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3) 배설 기능

신체에 필요하지 않은 유기수은, 비소, 아연 등의 중금속을 흡수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모유두를 거쳐 모간에 흡수되기도 하며 분변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모발은 혈액으로부터 영양과 산소를 흡수하여 성장하므로 체내의 노폐물이나 중금속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4) 장식적 기능

모발은 장식적 요소로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는 크고 높을수록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장식과 동시에 햇빛으로 보호하는 역할로 가발을 대신했다.¹¹⁾

남성, 여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과 미 또는 부의 상징으로서의 역할과 신분차이에 따른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같은 사람이라도 헤어스타일과 헤어 컬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 두발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스타일링을 내기도 하며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이성의 마음을 끌기도 하며 주위에서의 주목을 끄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1) 서윤경, 『전계서』, 2008, p.1

5) 상징적 기능

두발은 문화와 함께 발전해 가며 나이, 지위, 품위 등의 상징적인 장식물로서 감성적인 역할을 한다.¹²⁾

제 2 절 두피·모발의 유형별 손상 원인과 관리

1. 두피의 유형

인체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움직이듯이 두피 또한 그 기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기능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기능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기능이 깨지면 모주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상탈모 현상이 일어난다. 올바른 두피·모발 관리를 위해서는 두피의 유형별 분류와 특징, 그리고 관리방법과 이상 탈모 현상 등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정확한 두피진단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그림 1>.

1) 정상두피

정상두피는 모공이 열려 있고 각질과 불순물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며 두피 표면이 연한 청백색의 맑고 투명한 색깔을 띠고, 15~20%의 적당한 수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피가 촉촉하고 매끄러우며, 정상적인 각화주기(28일)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노화각질, 피지 및 기타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피지와 땀 분비 또한 적당히 분비되어 모공주변이 깨끗하고 한 개의 모공에 2~3본의 모발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다.¹³⁾

2) 건성두피

건성두피는 두피 표면이 얼룩이 져있고, 두피가 혼탁하고 불투명하며, 두피의 수분부족과 피지분비의 이상으로 각질 상태가 두피 표면에서 떠 있는 상태이다. 수분이 10%미만으로 두피의 당김,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40대 이후 두피가 건조한 경우 피지분비 이상으로 오는 건조현상이 많다. 또한 영양 결핍으로 오는 건조 두피의 경

12) 류은주 외, 『모발 미용학 개론』, 서울: 이화, 2004, pp.52-53

13) 최근희 외, 『모발관리 이론 및 실습』, 서울: 수문사, 2001, p.83

우 모발의 탄력이 떨어지고 모발의 연모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3) 지성두피

지성두피는 두피 표면이 묵은 각질과 피지의 과다분비로 인해 누렇게 혼탁한 색깔을 띠며, 끈적이는 느낌으로 모공주변이 피지로 덮여있고 심한 경우 피지가 모발을 타고 올라가 덩어리져 있다. 피지속의 세균으로 인해 가려움증과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하루만 샴푸를 걸러도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 지성두피의 경우 호르몬 불균형과 스트레스, 식생활에서 오는 피지분비의 이상이 많고 특히 피지분비가 많은 젊은 층에 지성두피가 많다. 청결히 관리하지 않을 시 과다 분비된 피지가 모공을 막고 신생모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비듬성 두피

비듬성 두피는 비듬균의 과다 증식으로 나타나는 두피로 건성비듬과 지성비듬 그리고 혼합비듬이 있다. 건성비듬의 경우, 땀과 수분 모두 부족해서 각질의 무게감이 적고 입자가 커서 옷깃에 비듬이 떨어지면 눈에 잘 띄고 수분함량이 10% 미만으로 두피에 당김 현상과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건성비듬의 경우 환절기에 더욱 심해지며 잦은 샴푸 혹은 샴푸 잔여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성비듬의 경우, 입자가 크고 무게감이 있으며 비듬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각질과 피지가 두피에 겹겹이 과도하게 붙어있다. 피지로 인해 공기중의 먼지, 이물질 등의 흡착이 쉬워 두피의 염증과 홍반 등이 잘 일어나고 염증으로 인해 악취와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혼합형비듬의 경우, 지성비듬보다 더 진한 황색을 띠며, 수분의 정도는 10% 미만으로 노화각질이 두껍고 끈적임은 덜하지만 모공이 막혀있고, 피지 분비는 지성비듬과 비슷하며, 세균으로 인한 가려움과 염증이 더욱 심하다.

5) 예민성 두피

예민성 두피의 경우 한눈에 예민성 두피를 알아볼 정도로 두피가 전체적으로 붉은 홍반과 싹뿔줄을 확인할 수 있다.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피부산화물 등 각종 감염에 대해 방어능력이 떨어져 두피의 염증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지루

성 두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예민성 두피의 경우 청결에 유의하고 심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피부막을 보호하여 유분과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⁴⁾

6) 복합성 두피

복합성 두피의 경우 두피상태가 부위별로 일정하지 않고 혼합적인 형태를 띤다. 보통 두피는 지성이고 모발은 건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젊은 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영양불균형, 스트레스, 잦은 헤어 시술 등의 이유로 두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두피가 단단하고 건조해지며, 모발에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발이 건조해지는 특징이 있다.

7) 지루성 두피

지루성 두피의 경우 피지선의 비대로 인해 두피의 모양이 볼록하게 부어오르고 붉은 등 염증을 일으켜 가려움증 및 두피의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두피 톤은 황색과 적색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피지의 과잉 분비로 인해 모공이 막혀 있고,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비듬 입자가 큰 것이 특징이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려움증, 염증등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두피에 피딱지가 앉아있는 경우도 있다.

8) 탈모성 두피

모발은 원래 일정한 사이클로 성장, 퇴화, 휴지, 발생기를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외적·내적인 이유로 인해 성장기는 짧아지고 휴지기는 늘어나면서 비정상적인 탈모 현상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탈모성 두피의 경우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두피 톤은 황색으로 얼룩져 있고, 모발은 갈수록 연모화 되어, 정수리 부위에 빈 모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탈모성 두피의 경우 건성, 지성, 예민성, 두피등과 함께 복합적인 두피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수면, 식생활,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의 문제로 갈수록 탈모성 두피가 늘어나

14) 김민정 외, 『전계서』, p.82

고 있다.

9) 건선 두피

건선 두피의 경우 유전적 원인과 기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보통 면역세포의 증가로 분비된 면역 물질이 각질 세포를 자극하여 세포가 과다 증식된 것으로 비듬의 형태로 쌓여 은백색의 두꺼운 인설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인설부위에 붉은 홍반을 동시에 가지면서 가렵고 따가운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고 계절, 약물, 유전, 스트레스 등에 의해 더욱 악화되기도 하는데,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를 반복하며 만성피부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형태이다.¹⁵⁾

		
정상두피	건성두피	지성두피
		
지성 비듬	건성 비듬	혼합성 비듬
		
탈모진행형 두피	건선두피	예민성 두피

<그림 1> 두피 상태 별 분류

출처: 두피&탈모관리학, p.83

15) 이방실, 「전계논문」, p.10

2. 두피의 손상원인

1) 내적 요인

두피 손상의 내적 원인은 두피 손상의 원인 중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며, 동시에 인체에 있어 두피 및 모발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두피 및 모발이 인체의 오장육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호르몬 분비이상, 스트레스, 식생활, 소화기관이상 등으로부터 두피의 손상이 나타남을 뜻한다. 일반적인 제품과 기기에 의존한 관리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두피 상태이기에 라이프스타일 및 건강상태를 잘 조절해야 한다.¹⁶⁾

2) 외적 요인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두피조직 전체가 파괴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내적 요인으로 인한 손상보다 외적 요인으로 인한 손상이 더 크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는 잘못된 샴푸 방법으로 두피에 자극을 주거나 브러싱, 드라이 등으로 두피에 무리가 생겨 두피 예민함을 유발할 경우이며, 화학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는 화학약품과 모발 및 두피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피손상으로 대부분 두피 과각화현상과 예민함을 동반하나 자신에 맞는 제품을 잘 선별하여 사용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는 두피에 오염물 누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므로 진행 과정이 늦어져 손상정도를 초기에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충분히 관리효과를 볼 수 있다.¹⁷⁾

3. 두피 관리방법

1) 정상 두피

정상두피는 현재의 두피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매일저녁 미지근한 물에 꼼꼼히 두피를 세정하고 물로 충분히 헹구어 샴푸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며, 건조 후 잠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위해 두피 토닉과 팩을 1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는 것이 좋고, 예방차원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두피 스켈링을

16) 조성일 외, 『두피 & 탈모관리학』, 서울: 리그라인, 2006, p.122

17) 송지형 외, 『TRICHOLOGIST EDUCATION BOOK』, 국제두피건강협회, 2007, p.115

받는 것이 중요하다.

2) 건성 두피

건성 두피는 과다하게 쌓인 두피의 각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막힌 모공을 열어주고, 원활한 피지분비와 혈액순환을 위해 주기적으로 브러싱이나 두피마사지를 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닉으로 영양공급과 팩을 해주는 것이 좋고 유·수분을 공급해주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방어능력을 키워준다.¹⁸⁾

3) 지성 두피

지성 두피의 경우 피지가 과다 분비되어 모공을 막고 있으므로, 평소에 샴푸방법이 중요하다<그림 2>. 샴푸시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문질러 주며, 물로 깨끗이 헹구어 주고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지성두피의 경우 두피에 피지 및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2~3번 꾸준히 스크빙 관리를 해주고, 기름진 음식을 피해서 피지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비듬성 두피

비듬성 두피의 경우 비듬균이 과다 번식하여 비듬과 가려움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균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사용하여 비듬균을 억제시키고, 샴푸세제를 깨끗하게 헹구어 세제 잔여물로 인한 가려움을 주의한다. 샴푸 후 살균 소독용 제품을 두피에 도포해 주고, 티트리, 시다우더, 라벤더 등의 아로마를 샴푸 후 사용해주면 비듬균을 억제하고 살균 소독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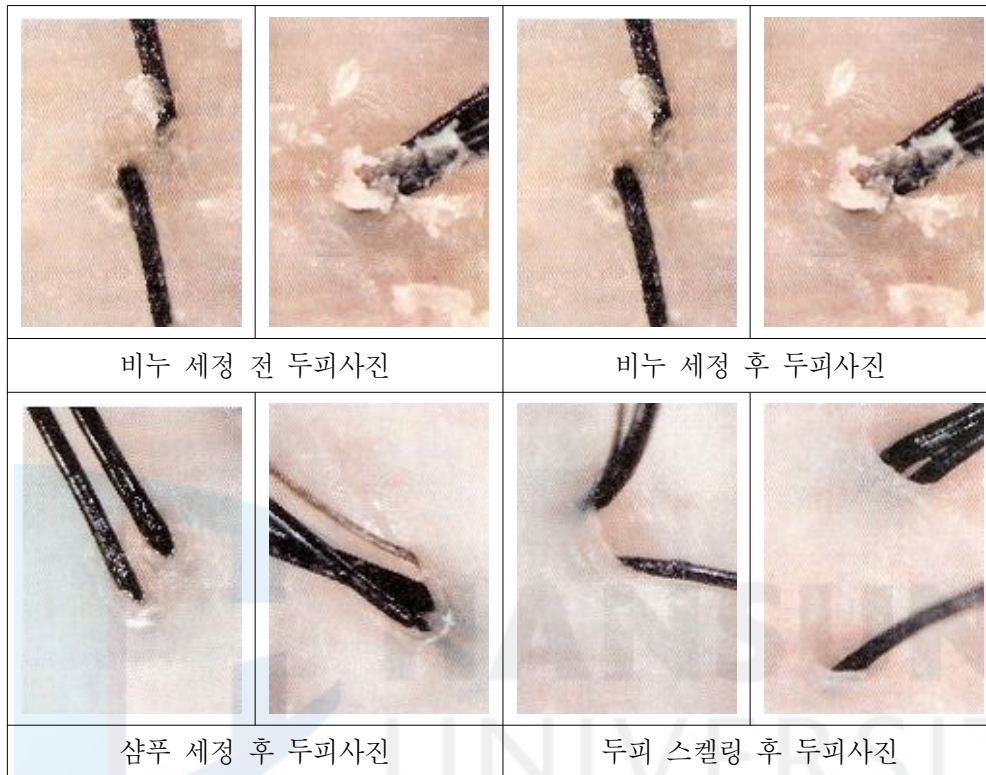
5) 예민성 두피

예민성 두피의 경우 화학적 물리적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저자극 샴푸로 미지근한 물에 가볍게 샴푸하는 것이 좋고, 물에 충분히 헹구어 두피에 샴푸제가 남지 않도록 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두피 층이 얇기 때문에 두피마사지를 가볍게 꾸준히 해주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두피를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18) 김민정 외, 『전계서』, p81

6) 탈모성 두피

탈모성 두피의 경우 모발이 약해져 있으므로 샴푸 시 가볍게 문지르고 꼼꼼하게 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샴푸 후 영양 토닉이나, 두피 팩 등으로 영양공급을 충분히 해주어 탈모를 지연시키는 것이 좋으며, 꾸준한 두피마사지로 모근을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림 2> 세정제 및 세정 방법에 따른 두피 상태 비교

출처: 두피&탈모관리학, p.117

4. 모발의 손상원인

모발의 손상원인은 모표피의 박리, 소실과 모표면의 주름, 열모, 지모, 단모 등 모발 외부의 비정상적인 상태 등으로 인하여 광택이나 촉감의 악화로 볼 수 있는 형태적 손상과, 모피질 및 수질층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일부가 물리적·화학적 변화로 인하여 악화 또는 유실되는 질적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⁹⁾

1) 생리적 요인

생리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는 호르몬의 불균형, 스트레스, 영양의 불균형 등으로 두피에 영향을 주어 모발에까지 손상을 끼치는 것이다. 호르몬의 불균형은 안드로겐(Androgen)의 과잉 분비로 피지선 활동을 촉진시키고, 모공을 막아 모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 혈액순환장애를 유발하며, 두부에 혈액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다이어트, 불규칙적인 식사, 편식 등은 영양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모발성장에 방해가 된다.²⁰⁾

2) 물리적 요인

물리적 손상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자극이나 열 등으로 인해서 모발의 형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모발은 케라틴 단백질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외부의 물리적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지나친 브러싱, 과도한 샴푸, 잘못된 타올 사용방법, 열 드라이, 미용도구 등으로 인해 모발이 손상을 입게 된다. 특히, 130°C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단백질 변성으로 모발 기능이 약해지게 된다.

(1) 마찰에 의한 손상

모발의 표면은 외부의 자극을 충분하게 막아내는 구조이나 빈번하게 행한 샴푸, 타올드라이, 빗질 등에 의해 모표피가 강하게 자극을 받기도 한다. 모발간의 엉킴을 풀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은 가장 간단한 빗질(combing)과 브러싱(brushing)이 있으나 과도한 빗질 또는 층 구조와의 역행된 빗질(back combing)은 모표피층 구조를 벗겨내는 박리 현상을 가져다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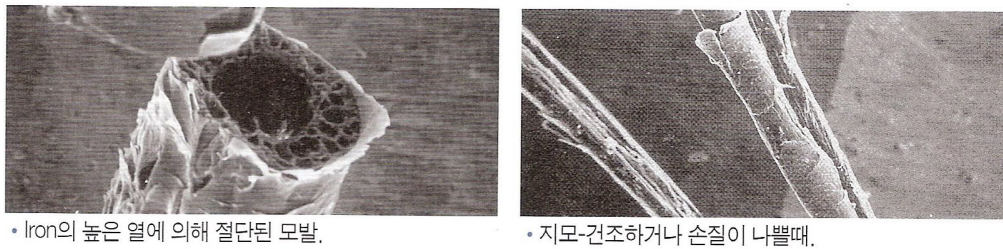
(2) 열에 의한 손상

모발 단백질은 열에 약하지만 피부보다는 강한 저항력이 있으며 그 한계점은 150°C 정도이다. 모발은 보통 10~15% 수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가열하면 이들의 수분이 증발 건조되어 감축이 악화된다. 더욱이 130°C~150°C 이상의 열을 모발에 가하면 팽창하여 변형을 일으키는 외에 검은 모발의 경우 다갈색으로 변색된다. 또한 모피질 모수질 중에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여 모발에 탄력이 없어지게 되어 위태

19) 최근희 외, 『모발 과학』, 서울: 수문사, 2001, p.64

20) 곽형심 외, 『모발·두피 관리학』, 서울: 청구문화사, 2004, p.68

롭게 된다. 250°C 전후 아이론이 약 1분간 모발 표면에 닿으면 그 부분의 모표피는
녹게 된다<그림 3>.



<그림 3> 열에 의한 손상모(좌), 마찰에 의한 손상모(우)

출처: 두피&탈모관리학, p.73

(3) 커트에 의한 손상

거친날의 가위로 절단된 모발 단면과 면도날을 이용하여 롱 테이퍼링 커트된 절단면은 모피질의 방향이 나타나는 범위가 넓어 단백질의 유실과 수분의 증발에 의해 기모와 열모가 형성된다<그림 4>.²¹⁾



<그림 4> 커트에 의한 손상모

출처: 모발과학, p.129

3) 화학적 손상

화학적 손상은 퍼머 약제나 염색약에 의해 모발 성분의 화학 변화를 일으켜 질적 손상이 생기는 것이다. 물리적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는 화학적 손상을 받기가 쉽고 또한 화학적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는 물리적 자극에 약하게 된다. 모발의 굵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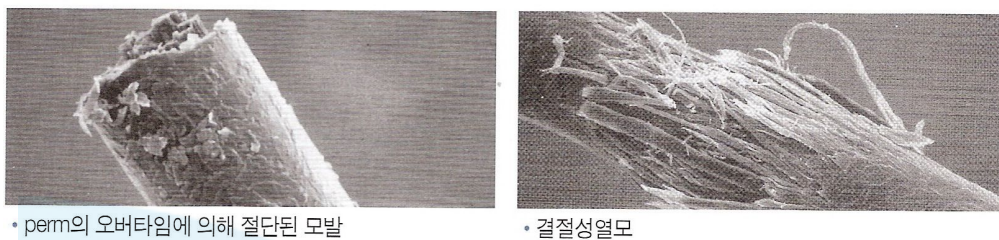
21) 류은주외, 『모발미용학의 이해』, 서울: 신아사, 2009, p.179

모질은 개인의 영양상태, 유전인자 등의 영향과 외부의 자극 등에 의해 변화한다. 모발 손상정도의 종류와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퍼머에 의한 손상

모질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원제와 산화제의 도포, 오버타임(over time)등의 경우 모발은 제1제로부터 환원된 그대로의 상태에서 모발 가소성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모표피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모발 내부 물질의 유실에 의해 탄력이 없어지고 약해져서 손상으로 진행된다<그림 5>.

로드(rod)제거 후에도 세발이 불충분함으로 인해 모발 가운데 알카리 또는 산화제가 잔류된 채로 있으면 케라틴 단백질의 변성 또는 멜라닌 색소의 퇴색을 일으킨다.



<그림 5> 퍼머제에 의한 손상모

출처: 두피&탈모관리학, p.73

(2) 축모교정에 의한 손상

웨이브 퍼머된 모발이나 축모를 직모로 교정시키기 위해 판넬(panel)을 사용하여 모다발에 지나친 텐션을 가해 무리하게 붙이면 모발 단면 변형과 함께 장시간의 용액방치에 의해 모발 내 성분이 유실된다. 축모교정 시 200°C 이상 고온 프레스 기기로의 처리방법에는 필요 이상 압력을 동반함으로 인해 모발 단면의 편평화와 모발 탄화를 가져다준다.

동시에 연화 상태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오쏘 코텍스(ortho-cortex)는 알카리의 환원제에 대해서 반응이 빠르나 파라 코텍스(para-cortex)는 작용이 느리다. 그러나 모표피의 연화에 의한 굴곡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파라코텍스에 맞추므로 필요 최저의 시간이 방치되면 알카리제에 반응하기 쉬운 오쏘 코텍스는 제1제에 의한 오버 타임으로 인해 모발이 손상 될 수 있다.

(3) 염색·탈색에 의한 손상

염모제와 탈색제 중 알칼리제 외에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산화수소는 산화염료의 색소를 발색시키는 것과 함께 모발 색소의 탈색 작용에 필요한 물질이다. 단기간에 시술 처리된 모발은 팽윤, 연화가 반복됨으로써 모표피가 손상되기도 한다.²²⁾

5. 모발의 회복과 관리방법

모발에는 자기 회복력이 없으므로 정상모는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손상모는 그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트리트먼트(treatment)제이다. 트리트먼트제의 중요한 성분은 수분과 유분이다. 수분은 모피질 중에 혼합되어 모발을 윤기 나게 하고 모발의 움직임에 유연성을 준다. 유분은 모표피에 유막을 만들어 광택을 주어 마찰을 감소시켜 모표피의 손상을 막아준다.

1) 손상모의 회복

(1) 모표피의 유막 형성

유성 원료를 정제한 것으로 계면활성제로 유화한 것을 모발에 도포하여 모표피의 마찰을 적게해서 외부로부터 물리적 손상방지, 광택, 감촉을 좋게 해준다.

(2) 모표피의 수지 막 형성

수지의 피막으로 모표피를 덮고 열과 마찰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고 모발에 광택을 준다.

(3) 모피질로부터 유출된 간충물질의 보급

간충 물질과 유사한 성분인 단백질, 가수 분해물, 보온 효과가 있는 아미노산, 식물 추출액 등을 모피질에 보급하여 유연성 있는 모발로 회복시켜준다.

2) 트리트먼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발을 유지하려면 수분과 유분이 매우 중요하다. 정상모는

22) 류은주 외, 『모발 미용학 개론』, 서울: 이화, 2004, p.177

10~15%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²³⁾ 퍼머나 염색 등의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 모발의 간층 물질이 빠져나가 다공성이 된 모발은 탄력과 윤기가 없다. 모발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기가 어려우며 그대로 방치해 두면 더욱 손상되어 갈라지거나 끊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손상 요인에 노출되기 이전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트리트먼트의 정의

트리트먼트는 치유, 치료라는 뜻으로 손상된 두피·모발을 정상화시키는 미용법이다. 즉 모발의 손상된 부분을 수분이나 유분을 공급하여 채워주고 지모나 절모 등의 모발 손상이나 비듬과 같은 현상을 방지해주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발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트리트먼트의 개념도 일시적인 치유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²⁴⁾

(2) 트리트먼트의 조건

모발을 유연하게 하며 빗질이 잘 되게 하여야 하며 모발 내부의 손상된 케라틴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고 회복하는 기능과 모발에 일정한 수분을 유지 해 주어야 한다.

3) 모발 진단에 따른 관리

(1) 가늘고 힘없는 모발

가늘고 힘이 없는 모발은 정전기가 잘 생기며 서로 엉키기도 쉽다. 수분유지, 단백질과 유분공급, 일상적인 트리트먼트 기술을 해준다. 모표피가 약하기 때문에 드라이 시 헤어로션(hair lotion)을 모발에 도포한 후 약한 바람으로 건조하며, 힘이 없고 처진 모발은 모근부터 말리고 자외선으로부터 멜라닌의 분해가 쉽기 때문에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에센스(essence)를 사용한다.

23) 최근희 외, 『전계서』, p.256

24) 서윤경, 『모발 미용학 개론』, 서울: 이화, 2004, pp.52-53

(2) 굵고 뻣뻣한 모발

굵고 뻣뻣한 모발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튼튼한 모발이므로 일상적인 보습효과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방법이며, 모발에 수분이 약 30% 정도 남아 있을 때 바람의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건조시키면 모발이 차분하고 윤기 있어 보인다.

(3) 지성 모발

끈적임이 많은 기름진 모발의 경우 자주 감는 것은 두피나 모발에 더욱 자극을 주어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침과 저녁 하루 2회 정도 샴푸를 하더라도 저자극성 샴푸제나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습 샴푸제 등의 선택이 중요하다.

(4) 갈라지고 끊어지는 모발

갈라지고 끊어지는 모발은 과도한 화학시술이 원인이므로 더 이상의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양공급에 중점을 두고, 스타일링제도 모발에 흡수율이 좋은 에센스를 사용한다. 모발에 자극을 주지 않게 끝이 둥근 브러시나 빗살이 영성한 브러시로 모발을 정리하며, 손상이 심한 부분의 모발은 잘라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²⁵⁾

(5) 곱슬머리

곱슬머리는 곧게 뻗은 생머리를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살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발에 조금 습기가 있을 때 트리트먼트제를 발라주면 침투력이 높고 곱슬머리의 단백질 밀도를 균등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²⁶⁾

제 3 절 탈모 관리

1. 탈모의 원인

모발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모유두에 있는 모모세포가 분열 증식하는 것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람의 모발에는 모주기가 있어 일정한 기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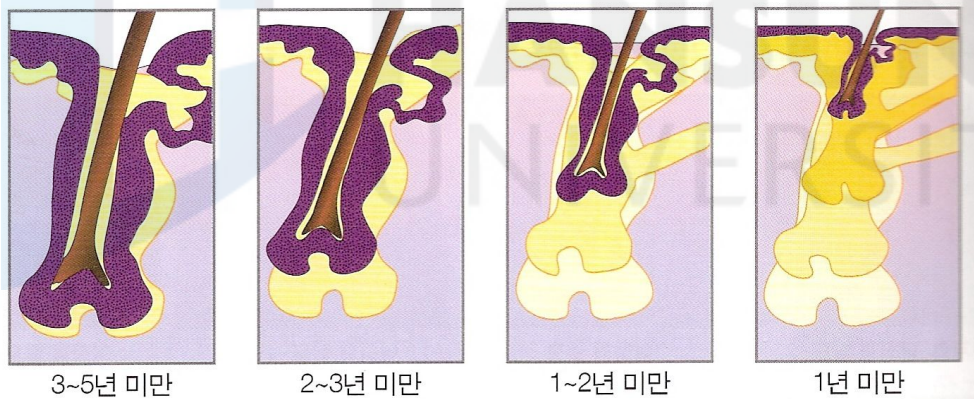
25) 송지형 외, 『전게서』, pp.52-53

26) 곽희진 외, 『미용과 영양』, 서울: 청구문화사, 2001, p.136

에는 휴지기가 와서 두피로부터 탈락하게 되며 모주기와 관계없이 빠지는 것을 탈모증이라 한다<그림 6>. 즉 비정상적으로 털이 많이 빠지거나 모발이 있어야 할 부위에 없거나 빈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모발은 나이, 계절, 인종, 생리적 요인, 스트레스, 질환 등의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하루 평균 50~100개 정도의 정상적인 휴지기 탈모가 일어나며, 하루에 100~200개 이상이 빠지면 이상 탈모증으로 보아야 한다.

보통 모발의 성장 속도는 더울 때 가장 빠르며 추울 때 가장 늦다. 그리고 탈모는 봄, 여름보다 가을, 겨울에 더 많이 일어난다. 모발의 성장은 보통 15~30세 사이에 가장 활발하며 40~50세에 이르면 점진적으로 퇴보한다. 그리고 50세 이상이 되면 노화에 의한 자연스런 탈모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70세 이후부터 탈모가 빨라진다.²⁷⁾

원인으로는 두피의 혈액순환장애, 다이어트(diet)나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한 영양부족, 스트레스나 불안 등 심리적인 요인, 땀이나 피지 등이 모공을 막고 있는 경우, 지나친 각화현상으로 모공이 막히거나 좁아진 경우, 잘못된 비누나 샴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나친 자극이나 압력으로 모낭에 손상을 입은 경우, 과로, 고열, 냉증, 빈혈 등에 의한 경우,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증가한 경우와 임신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등이 있다.²⁸⁾



<그림 6> 탈모 진행에 따른 모근 변화

출처: 두피&탈모관리학, p.180

27) 서윤경, 『전계서』, p.92

28) 송지형 외, 『전계서』, p.58

2. 탈모의 유형

다음과 같이 탈모의 유형은 크게 휴지기성 탈모와 성장기성 탈모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휴지기성 탈모

휴지기성 탈모증이란 정상적으로 전체 모발의 약 10%를 차지하는 휴지기 모발의 빈도가 증가하여 병적인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발 요인을 겪은 2~5개월 후 갑자기 발생하는 탈모로 발생 후 대개 2~6개월,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성장 주기가 다한 휴지기성 모발은 샴푸나 브러싱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고착력이 약해져 쉽게 떨어지게 된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 50~100개 정도의 모발이 빠지며 빠진 만큼 회복이 되지만, 휴지기 탈모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2) 성장기성 탈모

성장기의 모발이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현상으로 위축모라 한다. 성장기성 탈모는 주로 독성이 있는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를 한 뒤, 또는 1~2주 후에 나타난다. 특히 모발은 투여된 약의 약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가늘어지거나 부러지며 탈모가 되는데 약을 중단하게 되면 몇 주일 내에 모발이 자라나게 된다.

항암제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현장에서도 탈륨(Tl)이나 붕소(B)과 같은 화학 물질로 인한 탈모 현상이 나타난다. 두피외상, 압박, 내분비 질환이나 대사성질환, 감염성 및 유전성 질환에서도 성장기성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²⁹⁾

29) 서윤경, 『전계서』, p.92

[표 1] 탈모의 분류

휴지기성 탈모증	성장기성 탈모증
분만 후 탈모나 피임약 복용후 탈모증	원형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	압박성 탈모증
지루성 탈모증	약제성 탈모증
접촉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증	반흔성 탈모증
내분비 질환에 의한 탈모증	두부백선에 의한 탈모증
영양장애성 탈모증	매독성 탈모증
비타민 과잉에 의한 탈모증	그 밖에 질병으로 인한 탈모증

3. 탈모의 예방 및 관리방법

1) 탈모의 예방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탈모 예방의 최우선 방법이다. 무엇보다 모발과 두피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오드(iodine) 같은 미네랄 영양소와 비타민을 섭취하고, 또한 시스테인(cysteine), 글루타민산(glutamic acid), 아스파라긴산(asparaginic acid)등과 같은 아미노산(amino acid)과 단백질을 비롯해 올레인산(oleic acid), 리놀산(linoleic acid)등의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달걀, 돼지고기, 정어리, 미역, 콩, 두유, 오이, 검은깨 등과 해조류 및 야채류를 많이 먹는 것이 좋으며, 자극이 있는 향신료나 염분은 탈모를 촉진하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고, 기름진 음식과 설탕, 커피, 담배 등도 모발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한다.³⁰⁾

30) 이향옥, 『Hair Advantage』, 서울: 창술, 2004, p.246

2) 탈모의 관리방법

(1) 화학적 방법

문제성 두피 및 탈모에 효과적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류를 이용하여 문제 부위에 직접도포하거나 혹은 제품을 이용하여 세정을 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유효성분이 두피 조직 내에 침투하여 약화된 두피 기능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화장품인 양모제(養毛劑), 의약부외품인 육모제(育毛劑), 의약품인 발모제(發毛劑) 등이 있다.

(2) 기기적(물리적) 방법

문제성두피 및 탈모에 대한 기기의 사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문제부위에 대한 스스로의 면역력 증진과 신진대사 기능의 회복, 혈액순환 개선, 문제원인 파악 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용목적 및 문제 원인에 따라서 진단, 세정, 근육이완, 영양제 침투, 두피기능개선 등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³¹⁾

(3) 의학적 치료방법

① 미녹시딜(minoxidil)

미녹시딜은 원래 혈압을 조절하는 고혈압 약이지만 털이 자라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어 바르는 약으로 개발되었다. 1일 2회 이상을 바르며 최대 반응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도포해야 한다.³²⁾

② 프로페시아(propecia)

1997년 FDA(미국 식약의약품 안전청)에서 탈모치료제로 인정받은 남성호르몬 억제제로 처음에는 프로스카라는 전립선 비대증(prostatic hypertrophy) 치료 약물로 개발 되었다. 프로페시아는 남성탈모증 치료를 위한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로 나이가 젊을수록, 가운데 머리에 탈모가 진행되었을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³³⁾

31) 하병조 외, 『TRICHOLOGIST . 1』, 서울: Ye lim, 2006, p.214

32) 김영숙 외, 『전계서』, p.157

33) 대한미용교수협의회, 『TRICHOLOGY』, 서울: 청구문화사, 2007, p.124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자는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의 여성 403 명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헤어스타일 변화와 유행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연령대이며 미용실 이용횟수가 비교적 많고, 커트, 퍼머, 염색, 탈색 등 다양한 시술 경험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두피 상태와 이에 따른 두피·모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두피·모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두피·모발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 2 절 측정 도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지법이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5문항, 두피·모발 상태 및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24문항, 두피 및 탈모관리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한 9문항 등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설문조사는 2010년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임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424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불충분한 21부를 제외한 403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제 3 절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문제에 맞게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여성의 두피·모발 상태 및 두피·모발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χ^2 -test)을 하였다. 연령대에 따라 두피·모발 상태 및 두피·모발 관리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χ^2 -test)을 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연구변수	측정항목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수면시간	5
두피·모발 상태 및 관리실태	두피상태, 모발상태, 모발건강, 미용실에서 주로 받는 시술,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는 이유, 퍼머, 염색, 탈색 후 경험했던 부작용, 미용실 이용 회수, 2가지 이상 동시시술 경험 여부, 두피 모발 손상에 가장 큰 영향, 염색·탈색 후 모발 보호위한 트리트먼트 사용 여부, 모발의 건강과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의 중요도, 샴푸 회수, 사용하는 샴푸 종류, 샴푸 후 건조방법, 두피 모발에 대한 고민, 두피 모발 클리닉 인지도, 두피 모발 관리 정보원, 모발손상 원인, 두피 모발용 화장품 사용방법, 전용화장품 사용 여부	24
두피 및 탈모관리 서비스	탈모정도, 탈모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두피 탈모관리 경험, 서비스 만족사항, 서비스 불만족 사항, 탈모관리 계기, 관리 장소, 1회 평균 관리비용, 지속적 관리 여부	9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연령별, 결혼여부별, 직업별, 1일 평균 수면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26.1%로 가장 낮았으며, 30대가 27.3%, 40대가 46.7%로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여성 31.5%, 기혼여성이 68.5%로 나타나 기혼자의 비율이 미혼자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에서는 판매 서비스업 6.9%로 가장 낮았고, 다음이 행정사무직 10.7%, 학생 10.9%, 전문기술직 15.4%, 기타 16.4%, 전업주부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일 평균 수면 시간은 7~8시간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6시간이 40.2%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88.3%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8시간 사이의 수면을 시간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105	26.1
	30대	110	27.3
	40대	188	46.7
	합계	403	100.0
결혼상태	미혼	127	31.5
	기혼	276	68.5
	합계	403	100.0

(표 계속)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직업	학생	44	10.9
	전업 주부	160	39.7
	전문 기술직	62	15.4
	행정 사무직	43	10.7
	판매 서비스업	28	6.9
	기타	66	16.4
	합계	403	100.0
1일 평균 수면시간	5시간 미만	28	6.9
	5~6시간	162	40.2
	7~8시간	194	48.1
	9~10시간	19	4.7
	합계	403	100.0

제 2 절 두피·모발 상태

1. 두피 상태

연구 대상자들이 자각하는 두피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피 상태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정상 27.0%,와 지성 26.1%가 많고 그 다음으로 건성 23.8%가 많아, 20대에서 40대 여성의 두피상태는 주로 정상, 지성, 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두피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각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혼상태 별로는 미혼은 지성 두피 유형이 많았고, 기혼은 정상두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전문기술직, 판매서비스업과 기타에서는 지성두피 상태가 많았으며, 전업주부와 행정사무직은 정상두피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강수(2006)의 연구결과 즉 고객들의 두피타입에 대한 연구³⁴⁾에서도 두피유형이 나이가 많을수록 건성두피가 많이 나타나 본 연구와도 일치하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화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피부의 장력과 탄력에 관계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이 점차 적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왕성한 사회생활 및 결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혈액순환 장애와 함께 복합적인 원인으로 두피 건성화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두피 상태

기준 \ 문항		정상	지성	건성	예민성	잘 모름	합계	$\chi^2(df)$
연령	20대	23 21.9%	34 32.4%	22 20.1%	12 11.4%	14 13.3%	105 26.1%	14.194 (8)
	30대	23 20.9%	27 24.5%	26 23.6%	17 15.5%	17 15.5%	110 27.3%	
	40대	63 33.5%	44 23.4%	48 23.5%	18 9.6%	15 8.0	188 46.7%	
결혼 상태	미혼	29 22.8%	39 30.7%	28 22.0%	17 13.4%	14 11.0%	127 31.5%	3.500 (4)
	기혼	80 29.0%	66 23.9%	68 24.6%	30 10.9%	32 11.6%	276 68.5%	

(표 계속)

34) 오강수, 「전계논문」, p.42

기준 \ 문항		정상	지성	건성	예민성	잘 모름	합계	$\chi^2(df)$
직업	학생	13 29.5%	14 31.8%	9 20.5%	3 6.8%	5 11.4%	44 10.9%	28.702 (20)
	전업주부	52 32.5%	32 20.0%	39 24.4%	17 10.6%	20 12.5%	160 39.7%	
	전문기술직	10 16.1%	16 28.5%	16 25.8%	16 25.8%	4 6.5%	62 15.4%	
	행정사무직	13 30.2%	12 27.9%	9 20.9%	4 9.3%	5 11.6%	43 10.7%	
	판매 서비스업	4 14.3%	12 42.9%	6 21.4%	3 10.7%	3 10.7%	28 6.9%	
	기타	17 25.8%	19 28.8%	17 25.8%	4 6.1%	9 13.6%	66 16.4%	
합계		109 27.0%	105 26.1%	96 23.8%	47 11.7%	46 11.4%	403 100%	

2. 모발 상태

여성들의 현재 모발 상태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퍼머 모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퍼머와 염색을 한 상태가 28.3%, 자연모발 상태가 23.8%, 염색 또는 탈색만 한 상태 12.7%, 코팅 및 헤어 매니큐어를 한 상태가 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퍼머 모발 상태가 많았으며, 40대는 퍼머와 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전업주부는 퍼머 모발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기술직은 퍼머와 염색모발 상태가 많았으며, 행정사무직과 판매서비스업은 자연모발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이는 많은 여성들이 퍼머나 염색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퍼머나 염색을 통한 헤어스타일 변화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의 미용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과로 사료된다.

[표 5] 모발 상태

기준 \ 문항		자연 모발	코팅 및 헤어매 니큐어	염색 또는 탈색	퍼머와 염색	퍼머	합계	$\chi^2(df)$
연령	20대	22 21.0%	6 5.7%	18 17.1%	26 24.8%	33 31.4%	105 26.1%	9.395 (8)
	30대	31 28.2%	7 6.4%	8 7.3%	28 25.5%	36 32.7%	110 27.3%	
	40대	43 22.9%	6 3.2%	25 13.3%	60 31.9%	54 28.7%	188 46.7%	
결혼 상태	미혼	29 22.8%	9 7.1%	17 13.4%	35 27.6%	37 29.1%	127 31.5%	2.519 (4)
	기혼	67 24.3%	10 3.6%	34 12.3%	79 28.6%	86 31.2%	276 68.5%	
직업	학생	13 29.5%		7 15.9%	9 20.5%	15 34.1%	44 10.9%	44.829** (20)
	전업주부	33 20.6%	7 4.4%	16 10.0%	49 30.6%	55 34.4%	160 39.7%	
	전문기술직	8 12.9%	2 3.2%	17 27.4%	27 43.5%	8 12.9%	62 15.4%	
	행정사무직	13 30.2%	2 4.7%	4 9.3%	11 25.6%	13 30.2%	43 10.7%	
	판매 서비스업	10 35.7%	3 10.7%	2 7.1%	5 17.9%	8 28.6%	28 6.9%	
	기타	19 28.8%	5 7.6%	5 7.6%	13 19.7%	24 36.4%	66 16.4%	
합계		96 23.8%	19 4.7%	51 12.7%	114 28.3%	123 30.5%	403 100%	

**P<.01

위의 두피·모발 상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건성두피가 많아지고, 결혼 또는 사회활동의 가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두피는 건성화를 불러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30대는 퍼머에, 40대는 퍼머와 염색 등의 헤어스타일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절 두피·모발 관리실태

1.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는 이유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는 주된 이유를 알아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헤어스타일의 간편성 및 지속성을 위해서(35.2%)와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32.8%)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가 많았으며, 40대는 헤어스타일의 간편성 및 지속성을 위해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결혼상태 별로는 미혼은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가 많았으며, 기혼은 헤어스타일의 간편성 및 지속성을 위해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상태 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직업별로는 학생과 전문 기술직, 행정사무직은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가 많았으며, 전업주부, 판매서비스업은 헤어스타일의 간편성 및 지속성을 위해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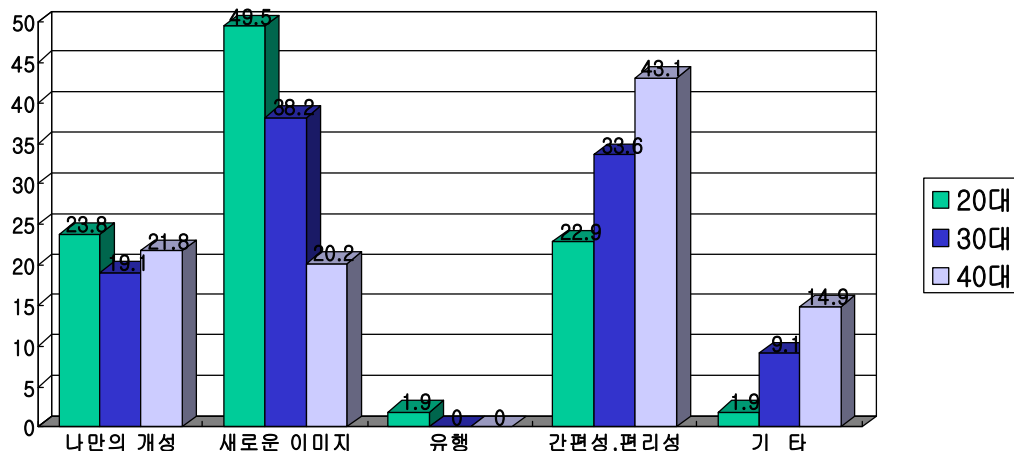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전정애³⁵⁾의 연구에서도 미혼여성은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 기혼은 헤어스타일의 간편성 및 지속성을 위해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거나 전업주부들인 경우, 유행이나 이미지 변신보다는 헤어스타일의 간편성 및 지속성을 위해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일, 자녀교육,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적 제한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35) 전정애,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숙명여자 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53

[표 6]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는 이유

기준	문항	문항						$\chi^2(df)$
		나만의 개성 연출	새로운 이미지 변신	유행을 따라	헤어스 타일의 간편성 및 지속성	기타	합계	
연령	20대	25 23.8%	52 49.5%	2 1.9%	24 22.9%	2 1.9%	105 100.0%	44.761*** (8)
	30대	21 19.1%	42 38.2%		37 33.6%	10 9.1%	110 100.0%	
	40대	41 21.8%	38 20.2%		81 43.1%	28 14.9%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29 22.8%	56 44.1%	2 1.6%	33 26.0%	7 5.5%	127 100.0%	19.905** (4)
	기혼	58 21.0%	76 27.5%		109 39.5%	33 12.0%	276 100.0%	
직업	학생	9 20.5%	21 47.7%	2 4.5%	11 25.0%	1 2.3%	44 100.0%	39.685** (20)
	전업주부	32 20.0%	45 28.1%		68 42.5%	15 9.4%	160 100.0%	
	전문기술직	18 29.0%	25 40.3%		12 19.4%	7 11.3%	62 100.0%	
	행정사무직	10 23.3%	15 34.9%		15 34.9%	3 7.0%	43 100.0%	
	판매 서비스업	7 25.0%	7 25.0%		11 39.3%	3 10.7%	28 100.0%	
	기타	11 16.7%	19 28.8%		25 37.9%	11 16.7%	66 100.0%	
합계		87 21.6%	132 32.8%	2 0.5%	142 35.2%	40 9.9%	403 100.0%	

***P<.001 **P<.01



<그림 7>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는 이유

2. 퍼머, 염색, 탈색 시술 후 부작용 경험

여성들의 퍼머, 염색, 탈색 시술 후 부작용 경험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가가 58.6%로 많았으며,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41.4%로 나타났다.

이는 김 리라(2003)³⁶⁾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경험했던 조사대상자 64.1%보다 크게 감소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여성들의 모발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보 등을 통해 두피·모발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미용 기술자들의 정확한 두피·모발 진단과 시술방법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조언 등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좋은 결과라고 사료된다.

36) 김리라, 「여대생의 모발미용 관리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57

[표 7] 퍼머, 염색, 탈색 시술 후 부작용 경험

기준 \ 문항		있음	없음	합계	$\chi^2(df)$
연령	20대	45 42.9%	60 57.1%	105 100.0%	0.664 (2)
	30대	42 38.2%	68 61.8%	110 100.0%	
	40대	80 42.6%	108 57.4%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57 44.9%	70 55.1%	127 100.0%	0.906 (1)
	기혼	110 39.9%	166 60.1%	276 100.0%	
직업	학생	17 38.6%	27 61.4%	44 100.0%	6.863 (5)
	전업주부	67 41.9%	93 58.1%	160 100.0%	
	전문기술직	34 54.8%	28 45.2%	62 100.0%	
	행정사무직	14 32.6%	29 67.4%	43 100.0%	
	판매 서비스업	10 35.7%	18 64.3%	28 100.0%	
	기타	25 37.9%	41 62.1%	66 100.0%	
합계		167 41.4%	236 58.6%	403 100.0%	

3. 미용실 이용주기

미용실 이용 주기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결과는 [표 8]에서와 같이 3~4개월에 한번 36.7%, 1~2개월에 한번 36.2%로 유사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5~6개월에 한번이 18.4%, 기타의 시술빈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가 낮은 20대와 30대는 미용실 이용 주기가 3~4개월이 많은 반면, 40대의 경우 1~2개월이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처럼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적인 여건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체중증가, 새치머리, 자연탈모 등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자기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 퍼머와 염색 등을 통한 스타일 변화를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전업주부가 3~4개월 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전문기술직, 행정사무직, 판매서비스업과 기타의 경우는 1~2개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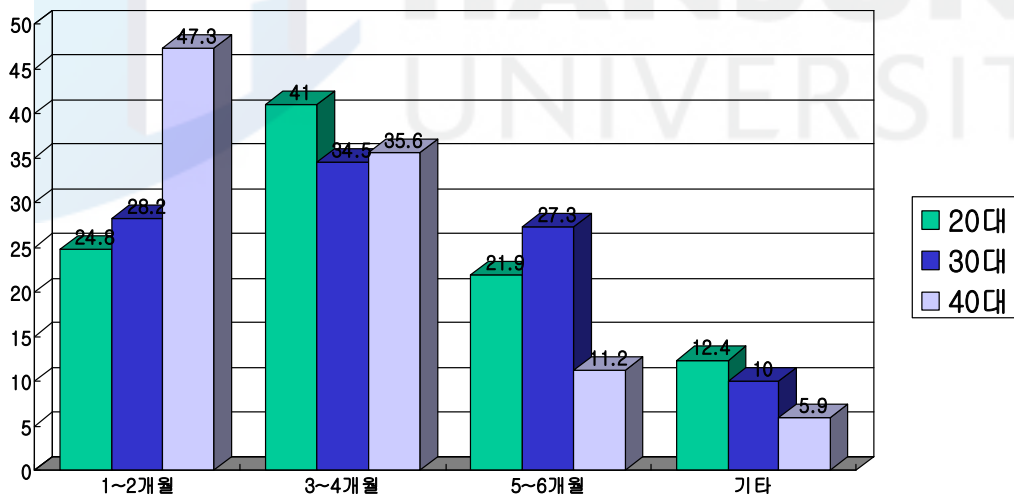
[표 8] 미용실 이용 주기

문항		1~2개월	3~4개월	5~6개월	기타	합계	$\chi^2(df)$
연령	20대	26 24.8%	43 41.0%	23 21.9%	13 12.4%	105 100.0%	27.277*** (6)
	30대	31 28.2%	38 34.5%	30 27.3%	11 10.0%	110 100.0%	
	40대	89 47.3%	67 35.6%	21 11.2%	11 5.9%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39 30.7%	50 39.4%	24 18.9%	14 11.0%	127 100.0%	3.110 (3)
	기혼	107 38.8%	98 35.5%	50 18.1%	21 7.6%	276 100.0%	

(표 계속)

기준 \ 문항		1~2개월	3~4개월	5~6개월	기타	합계	$\chi^2(df)$
직업	학생	11 25.0%	17 38.6%	8 18.2%	8 18.2%	44 100.0%	31.511* (15)
	전업주부	45 28.1%	76 47.5%	29 18.1%	10 6.2%	160 100.0%	
	전문기술직	31 50.0%	18 29.0%	7 11.3%	6 9.7%	62 100.0%	
	행정사무직	17 39.5%	13 30.2%	10 23.3%	3 7.0%	43 100.0%	
	판매 서비스업	15 53.6%	8 28.6%	3 10.7%	2 7.1%	28 100.0%	
	기타	27 40.9%	16 24.2%	17 25.8%	17 25.8%	66 100.0%	
합계		146 36.2%	148 36.7%	74 18.4%	35 8.7%	403 100.0%	

***P<.001, *P<.05



<그림 8> 미용실 이용 주기

4. 퍼머, 염색, 탈색 후의 트리트먼트

연구대상자들의 퍼머, 염색, 탈색 후의 트리트먼트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9]는 가끔 한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반드시 한다 21.1%, 전혀 하지 않는다 20.1%, 퍼머, 염색, 탈색 직후에만 한다 3.5%로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 63.6%, 전업주부 55.6%, 전문기술직 64.5%, 행정사무직 37.2%, 판매서비스업 42.9%, 기타 57.6%가 퍼머와 염색 탈색 후의 트리트먼트 시술은 가끔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는 전정애(2007)³⁷⁾의 퍼머, 염색, 탈색 후의 트리트먼트를 가끔 하는 여성들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퍼머, 염색, 탈색 직후에만 한다 9.9%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모발은 퍼머, 염색, 탈색 등의 화학적, 물리적, 자극에 의해 손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 화학적 손상으로 인한 변형을 가져오는 퍼머의 경우 일시적으로 강한 알칼리 성분을 이용하여 모발의 케라틴 단백질 결합을 끊었다가 재결합 시키는 방법으로, 모발에 무리를 주어 모발이 윤기를 잃고 건조해 지거나 다공성 모발로 변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된다.

트리트먼트는 손상된 모표피를 보호하고, 모발에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며, 그 외에도 정전기 발생 방지와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함으로 1주일에 2~3회 정도 꾸준히 해주면 퍼머, 염색, 탈색으로 인한 손상모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화학약품을 사용한 미용시술 이후에는 모발보호를 위한 트리트먼트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⁸⁾

37) 전정애, 「전계논문」, pp.61-62

38) 이방실, 「전계논문」, p.63

[표 9] 퍼머, 염색, 탈색 후의 트리트먼트

기준 \ 문항		반드시 한다	가끔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퍼머, 염색, 탈색 후에만 한다	합계	$\chi^2(df)$
연령	20대	24 22.9%	60 57.1%	18 17.1%	3 2.9%	105 100.0%	2.636 (64)
	30대	26 23.6%	57 51.8%	22 20.0%	5 4.5%	110 100.0%	
	40대	35 18.6%	106 56.4%	41 21.8%	6 3.2%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32 25.2%	68 53.5%	24 18.9%	3 2.4%	127 100.0%	2.382 (3)
	기혼	53 19.2%	155 56.2%	57 20.7%	11 4.0%	276 100.0%	
직업	학생	9 20.5%	28 63.6%	7 15.9%		44 100.0%	26.014* (15)
	전업주부	37 23.1%	89 55.6%	27 16.9%	7 54.4%	160 100.0%	
	전문기술직	8 12.9%	40 64.5%	10 16.1%	4 6.5%	62 100.0%	
	행정사무직	13 30.2%	16 37.2%	13 30.2%	1 2.3%	43 100.0%	
	판매 서비스업	3 10.7%	12 42.9%	12 42.9%	1 3.6%	28 100.0%	
	기타	15 22.7%	38 57.6%	12 18.2%	1 1.5%	66 100.0%	
합계		85 21.1%	223 55.3%	81 20.1%	14 3.5%	403 100.0%	

*P<.05

5. 사용하는 샴푸제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의 두피·모발 상태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샴푸제는 [표 10]의 결과와 같이 기능성 샴푸제 사용이 가장 많은 54.3%로 나타났으며, 일반샴푸 42.7%, 샴푸 린스 겸용샴푸가3.0%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탈모자와 일반인의 두발상태 및 관리를 연구한 조남춘³⁹⁾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샴푸 43.9%, 겸용샴푸22.3%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전체가 자신의 외모 관리에 비교적 관심이 많은 여성들로, 건강한 두피·모발관리의 기본은 자신의 두피·모발 상태를 고려한 샴푸제의 선택이라는 인식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여성들이 기능성 샴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헤어스타일 변화를 위한 매직 등 다양한 열퍼머와 염색, 탈색 등의 빈번한 시술로 인한 자가 진단 및 전문가의 조언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사료된다.

[표 10] 사용하는 샴푸제

기준 \ 문항		기능성 샴푸	일반 샴푸	샴푸 린스 겸용샴푸	합계	χ ² (df)
연령	20대	51 48.6%	51 48.6%	3 2.9%	105 100.0%	5.384 (4)
	30대	60 54.5%	49 44.5%	1 0.9%	110 100.0%	
	40대	108 57.4%	72 38.3%	8 4.3%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60 47.2%	64 50.4%	3 2.4%	127 100.0%	4.541 (2)
	기혼	159 57.6%	108 39.1%	9 3.3%	276 100.0%	

(표 계속)

39) 조남춘, 「탈모자와 일반인의두발상태 및 관리, 식습관, 스트레스 정도, 가족력에 대한 비요분석」.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71

기준 \ 문항		기능성 샴푸	일반 샴푸	샴푸 린스 검용샴푸	합계	$\chi^2(df)$
직업	학생	16 36.4%	25 56.8%	3 6.8%	44 100.0%	14.065 (10)
	전업주부	95 59.4%	58 36.2%	7 4.4%	160 100.0%	
	전문기술직	32 51.6%	30 48.4%		62 100.0%	
	행정사무직	24 55.8%	18 41.9%	1 2.3%	43 100.0%	
	판매 서비스업	16 57.1%	12 42.9%		28 100.0%	
	기타	36 54.5%	29 43.9%	1 1.5%	66 100.0%	
합계		219 54.3%	172 42.7%	12 3.0%	403 100.0%	

6. 샴푸 후 모발 건조방법

연구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샴푸 후 모발 건조방법에 대한 결과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드라이기 온풍을 이용한 건조 40.9%로 가장 많았고, 자연건조 31.0%, 드라이기의 온풍과 냉풍을 이용한 건조 20.3%, 드라이기의 냉풍을 이용한 건조 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상태 별로는 미혼 36.25, 기혼 43.6%가 드라이기 온풍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상태별 모발 건조방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직업별로는 학생과 전업주부 행정사무직은 드라이기 온풍 건조가 많았고, 전문기술직은 드라이기 온풍과 냉풍사용, 판매 서비스업은 드라이기 온풍과 자연건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별 샴푸 후 모발 건조방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모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조방법은 자연건조나 드라이기 냉풍을 이용한 건조가 두피와 모발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모발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열에 약하다. 그러므로 브로우 드라이어에 의해 단백질이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20cm 이상 모발로부터 거리를 두며 한곳에 열을 30초 이상 쬌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에 냉풍으로 마무리하면 헤어스타일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또한 젖은 상태의 모발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다 보면 큐티클이 손상을 입게 되므로 드라이어로 건조하기 전에 타월로 충분히 두드려 말린 후 두피·모발 보호용 화장품을 사용하여 건조와 헤어 스타일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1] 샴푸 후 모발 건조 방법

문항 기준		드라이기 온풍	드라이기 냉풍	드라이기 온풍과 냉풍	자연건조	합계	$\chi^2(df)$
연령	20대	40 38.1%	9 8.6%	30 28.6%	26 24.8%	105 100.0%	10.397 (6)
	30대	43 39.1%	9 8.2%	25 22.7%	33 30.0%	110 100.0%	
	40대	82 43.6%	13 6.9%	27 14.4%	66 35.1%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46 36.2%	14 11.0%	39 30.7%	28 22.0%	127 100.0%	18.280*** (3)
	기혼	119 43.1%	17 6.2%	43 15.6%	97 35.1%	276 100.0%	
직업	학생	17 38.6%	2 4.5%	12 27.3%	13 29.5%	44 100.0%	34.390** (15)
	전업주부	67 41.9%	10 6.2%	22 13.8%	61 38.1%	160 100.0%	
	전문기술직	22 35.5%	2 3.2%	24 38.7%	14 22.6%	62 100.0%	
	행정사무직	19 44.2%	5 11.6%	12 27.9%	7 16.3%	43 100.0%	

(표 계속)

기준 \ 문항		드라이기 온풍	드라이기 냉풍	드라이기 온풍과 냉풍	자연건조	합계	$\chi^2(df)$
직업	판매 서비스업	10 35.7%	3 10.7%	5 17.9%	10 35.7%	28 100.0%	34.390** (15)
	기타	30 45.5%	9 13.6%	7 10.6%	20 30.3%	66 100.0%	
합계		165 40.9%	31 7.7%	82 20.3%	125 31.0%	403 100.0%	

***P<.001 **P<.01

위의 3절에 나타난 두피·모발 관리 실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퍼머, 염색, 탈색을 하는 이유는 20~30대의 미혼과 학생, 직장인들은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이나 연령이 높고 전업주부 일수록 유행이나 이미지 변신 보다는 헤어스타일의 간편성과 지속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리 측면에서 트리트먼트 사용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과 이중 연령이 높을수록 기능성 샴푸의 사용 등에 높게 반응 하고 있으며, 이는 미용기술의 발달과 마스크, 미용교육,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헤어디자이너의 조언 등으로 고객들이 두피와 모발 관리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퍼머, 염색, 탈색 기술의 부작용 경험은 2003년의 선행조사연구보다는 줄었으나, 아직도 응답자중 41%에 달하는 167명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해서 , 염색, 탈색 기술에 대한 부작용을 줄여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4 절 두피·모발 손상에 대한 인식

1. 두피·모발 손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기술

연구 대상자들이 자각하고 있는 미용서비스 기술로 인해 두피·모발 손상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결과는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염색, 탈색이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퍼머 16.4%, 드라이 6.7%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전업주부, 전문 기술직, 행정사무직, 판매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의 여성들이 염색 또는 탈색이 두피와 모발 손상에 영향을 주는 기술로 나타나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모발이 손상되는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염색과 탈색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염색과 탈색시 멜라닌 색소의 파괴를 위해 사용되는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는 모발의 케라틴에 손상을 입히게 되며, 이는 과산화수소 농도와 염모제의 수소이온농도(pH)가 높을수록 더욱 심해진다. 염색과 탈색 후에는 헤어 트리트먼트나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등을 통해 민감해진 두피·모발을 보호하고 화학약품의 기술로 인한 두피·모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퍼머 기술 시 행해지는 환원과 산화 작용 과정에서 퍼머제의 용액이 두피에 흘러 각질층이 팽창된 상태에서 본래의 약산성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거나, 와인딩 시 고무 밴딩 처리를 잘못하여 모근 부분이 끊어지기도 하며, 알카리 성분이 남아 있는 상태로 블로우 드라이를 할 경우 모발이 변색되기도 하는데, 조사결과 20~40대 여성 모두가 두피 모발 건강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미용 기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두피·모발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시술

기준 \ 문항		문항						
		커트	퍼머	염색 또는 탈색	드라이	코팅 및 헤어매니큐어	합계	$\chi^2(df)$
연령	20대		14 13.3%	81 77.1%	9 8.6%	1 1.0%	105 100.0%	7.147 (8)
	30대	1 0.9%	15 13.6%	87 79.1%	6 5.5%	1 0.9%	110 100.0%	
	40대	3 1.6%	37 19.7%	136 72.3%	12 6.4%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22 17.3%	93 73.2%	11 8.7%		127 100.0%	3.443 (4)
	기혼	4 1.4%	44 15.9%	211 76.4%	16 5.8%	1 0.4%	276 100.0%	
직업	학생		7 15.9%	33 75.0%	3 6.8%	1 2.3%	44 100.0%	39.054** (20)
	전업주부	2 1.2%	31 19.4%	120 75.0%	7 4.4%		160 100.0%	
	전문기술직		9 14.5%	50 80.6%	3 4.8%		62 100.0%	
	행정사무직		6 14.0%	26 60.5%	11 25.6%		43 100.0%	
	판매 서비스업	1 3.6%	3 10.7%	23 82.1%	1 3.6%		28 100.0%	
	기타	1 1.5%	10 15.2%	52 78.8%	2 3.0%	1 1.5%	66 100.0%	
합계		4 1.0%	66 16.4%	304 75.4%	27 6.7%	2 0.5%	403 100.0%	

**P<.01

2. 모발의 건강유지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발의 건강유지’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발의 건강유지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29.3%, 잘 모르겠다 4.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40대 모두가 모발의 건강유지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높은 결과를 나타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결혼상태 별로는 미혼 52.0%, 기혼 73.2%가 모발의 건강유지가 중요하다는 높은 결과를 나타내 결혼 상태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업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모든 분야의 여성들이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보다는 모발의 건강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강경하⁴⁰⁾의 선행 연구에서도 ‘모발 건강유지’와 ‘헤어스타일 연출’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모발 건강유지’가 70.4%로, ‘헤어스타일 연출’ 29.6%보다 높은 결과 본 연구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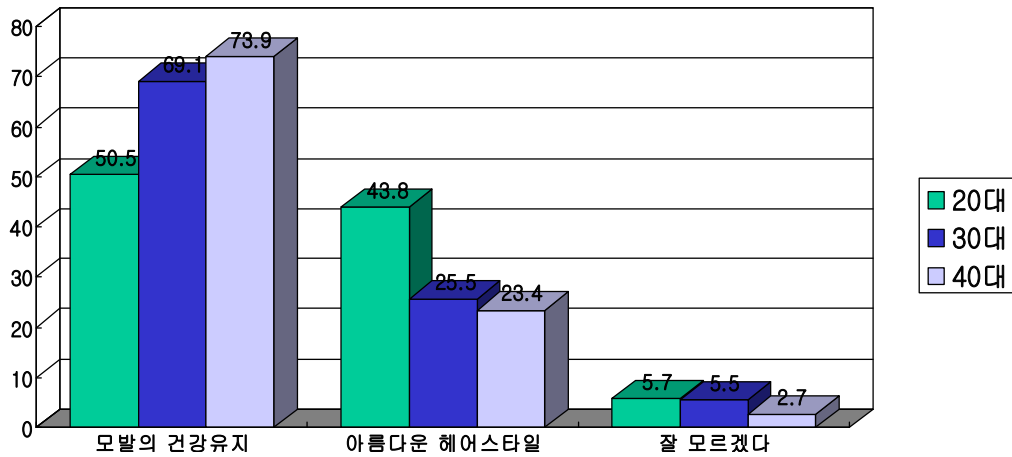
모발건강은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나타냄과 동시에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피·모발이 건강해야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두피, 모발보다 헤어스타일 연출에만 치중하다 보면 두피·모발의 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자 한다면 두피·모발의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올바른 관리 습관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 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여성들의 자기관리 의식 변화와 정보화에 따라 두피·모발 관리를 위한 제품사용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의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40) 강경하, 「여성들의 모발손상에 대한 의식형태와 관련요인 조사」, 대구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68

[표 13] 모발의 건강유지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기준 \ 문항		모발의 건강 유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잘 모르겠다	합계	$\chi^2(df)$
연령	20대	53 50.5%	46 43.8%	6 5.7%	105 100.0%	18.104** (4)
	30대	76 69.1%	28 25.5%	6 5.5%	110 100.0%	
	40대	139 73.9%	44 23.4%	5 2.7%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66 52.0%	52 40.9%	9 7.1%	127 100.0%	18.123*** (2)
	기혼	202 73.2%	66 23.9%	8 2.9%	276 100.0%	
직업	학생	22 50.0%	18 40.9%	4 9.1%	44 100.0%	20.889* (10)
	전업주부	116 72.5%	40 25.0%	4 2.5%	160 100.0%	
	전문기술직	33 53.2%	28 45.2%	1 1.6%	62 100.0%	
	행정사무직	29 67.4%	11 25.6%	3 7.0%	43 100.0%	
	판매 서비스업	20 71.4%	6 21.4%	2 7.1%	28 100.0%	
	기타	48 72.7%	15 22.7%	3 4.5%	66 100.0%	
합계		268 66.5%	118 29.3%	17 4.2%	403 100.0%	

***P<.001 **P<.01 *P<.05



<그림 9> 모발의 건강유지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중 중요도

3. 두피·모발 클리닉 인식여부

연구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두피·모발 클리닉에 관해서는, 알고 있다 56.8%, 잘 모른다 43.2%로 연령별 20~40대 여성, 미혼과 기혼여성 모두가 알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 77.4%, 전업주부 58.8%, 기타 54.5%가 알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학생과 행정사무직, 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잘 모른다는 결과로 나타나 직업별 두피와 모발 클리닉 인식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건강하고 광택이 있는 아름다운 모발을 유지하려면 수분이나 유분이 매우 중요하다. 정상모는 20~3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분이나 유분이 부족하면 모발은 건조해서 부드러움과 광택을 잃고 마찰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기 쉬우며 형태도 나빠진다. 헤어 트리트먼트제는 이러한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대전방지제, 유지류습윤제, 모질개량제, 계면활성제, 살균 소독제 등이 배합되어 두발에 수분이나 유분을 보급해준다.⁴¹⁾

41) 최근희 외, 『모발과학』, 서울: 수문사, 2001, p.256

[표 14] 두피·모발 클리닉 인식여부

문항 기준		알고 있다	잘 모른다	합계	$\chi^2(df)$
연령	20대	59 56.2%	46 43.8%	105 100.0%	0.056 (2)
	30대	62 56.4%	48 43.6%	110 100.0%	
	40대	108 57.4%	80 42.6%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70 55.1%	57 44.9%	127 100.0%	0.220 (1)
	기혼	159 57.6%	117 42.4%	276 100.0%	
직업	학생	18 40.9%	26 59.1%	44 100.0%	18.740** (5)
	전업주부	94 58.8%	66 41.2%	160 100.0%	
	전문기술직	48 77.4%	14 22.6%	62 100.0%	
	행정사무직	20 46.5%	23 53.5%	43 100.0%	
	판매 서비스업	13 46.4%	15 53.6%	28 100.0%	
	기타	36 54.5%	30 45.5%	66 100.0%	
합계		229 56.8%	174 43.2%	403 100.0%	

**P<.01

4. 두피·모발 보호 및 재생전용 화장품 사용여부

여성들의 두피와 모발 보호 및 재생전용 화장품 사용여부에 대한 결과는 예 라는 응답이 55.8%로 많았으며, 아니오 44.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아니오 라는 응답이 많았고, 30~40대는 예라는 응답자가 많아 연령대가 높을수록 두피·모발 보호 및 재생전용 화장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는 보통 40대 이후부터는 잦은 염색이나 펌 등 시술로 인한 두피·모발 손상에 대한 경험과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별로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두피와 모발 보호 및 재생전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15] 두피·모발 보호 및 재생전용 화장품 사용여부

문항		예	아니오	합계	$\chi^2(df)$
기준					
연령	20대	47 44.8%	58 55.2%	105 100.0%	7.858* (2)
	30대	62 56.4%	48 43.6%	110 100.0%	
	40대	116 61.7%	72 38.3%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62 48.8%	65 51.2%	127 100.0%	3.698 (1)
	기혼	163 59.1%	113 40.9%	276 100.0%	
직업	학생	15 34.1%	29 65.9%	44 100.0%	13.071* (5)
	전업주부	94 58.8%	66 41.2%	160 100.0%	
	전문기술직	42 67.7%	20 32.3%	62 100.0%	

(표 계속)

기준 \ 문항		예	아니오	합계	$\chi^2(df)$
직업	행정사무직	24 55.8%	19 44.2%	43 100.0%	13.071* (5)
	판매 서비스업	16 57.1%	12 42.9%	28 100.0%	
	기타	34 51.5%	32 48.5%	66 100.0%	
합계		225 55.8%	178 44.2%	403 100.0%	

*P<.05

위의 제4절 두피·모발 손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결과는 75%가 염색과 탈색이 손상을 주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헤어스타일의 연출 보다는 먼저 모발과 두피의 건강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 건강유지를 위해 두피 모발 보호 및 재생전용 화장품의 인식과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게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대체로 건강한 20대 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두피 모발 관리를 위한 화장품을 선호하며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행이나 스타일 보다는 건강한 헤어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변화로 보이는데, 이것은 최근 여성의 사회 활동과 더불어 자기관리와 정보수집기회의 확대, 교육과 관리기회의 확대가 늘어나고 변화되어가는 긍정적인 반응의 결과로 사료된다

제 5 절 탈모관리 실태 및 인식

1. 탈모 상태 인식도

연구 대상자들의 탈모상태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약간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53.8%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다 40.0%, 반면에 탈모가 심하다고 대답한 여성들이 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이 낮은 20대와 미혼, 학생들은 탈모가 전혀 없다는 대답이 많았고, 연령대가 높거나 기혼 전업주부 전문기술직과 행정사무직과 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일수록 탈모가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탈모 상태 인식도

문항 기준		전혀 없다	약간 있다	탈모가 심하다	합계	$\chi^2(df)$
연령	20대	52 49.5%	46 43.8%	7 6.7%	105 100.0%	8.230 (4)
	30대	43 39.1%	58 52.7%	9 8.2%	110 100.0%	
	40대	66 35.1%	113 60.1%	9 4.8%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60 47.2%	60 47.2%	7 5.5%	127 100.0%	4.113 (2)
	기혼	101 36.6%	157 56.9%	18 6.5%	276 100.0%	
직업	학생	25 56.8%	17 38.6%	2 4.5%	44 100.0%	9.251 (10)
	전업주부	55 34.4%	94 58.8%	11 6.9%	160 100.0%	
	전문기술직	25 40.3%	32 51.6%	5 8.1%	62 100.0%	
	행정사무직	15 34.9%	25 58.1%	3 7.0%	43 100.0%	
	판매 서비스업	13 46.4%	14 50.0%	1 3.6%	28 100.0%	
	기타	28 42.4%	35 53.0%	3 4.5%	66 100.0%	
합계		161 40.0%	217 53.8%	25 6.2%	403 100.0%	

2. 탈모가 사회 활동에 미치는 요인

여성들의 탈모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표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실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42.7%로 나타났고, 우울증 2.7%, 연애/결혼을 위한 이성교제의 어려움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정애⁴²⁾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실 51.7%, 정신적 스트레스 40.4%, 연애/결혼을 위한 이성교제의 어려움 4.1%, 사교/친목활동의 기회제한과 우울증 1.9% 순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현대 사회에서 탈모는 단순히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고거나, 원하는 헤어스타일 연출에 제한을 받는다고거나 등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감 결여, 심리적인 위축감, 우울증, 수치심, 콤플렉스(complex), 결혼, 면접, 맞선 등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등의 심리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에 따라서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인한 대인관계 기피 현상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두피·모발 관리와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17] 탈모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요인

기준	문항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실	연애/결혼을 위한 이성교제의 어려움	사교/친목활동의 기회제한	우울증	정신적인 스트레스	합계	$\chi^2(df)$
연령	20대	47 44.8%	4 3.8%	1 1.0%	3 2.9%	50 47.6%	105 100.0%	9.139 (8)
	30대	59 53.6%	2 1.8%	1 0.9%	6 5.5%	42 38.2%	110 100.0%	
	40대	102 54.3%	3 1.6%	1 0.5%	2 1.1%	80 42.6%	188 100.0%	

(표 계속)

42) 전정애, 「전계논문」, p.89

기준 \ 문항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실	연애/ 결혼을 위한 이성 교재의 어려움	사교/ 친목 활동의 기회 제한	우울증	정신적 인 스트레스	합계	$\chi^2(df)$
결혼 상태	미혼	58 45.7%	5 3.9%	1 .8%	3 2.4%	60 47.2%	127 100.0%	4.681 (4)
	기혼	150 54.3%	4 1.4%	2 .7%	8 2.9%	112 40.6%	276 100.0%	
직업	학생	17 38.6%	2 4.5%		3 6.8%	22 50.0%	44 100.0%	21.701 (20)
	전업주부	92 57.5%	2 1.2%	2 1.2%	5 3.1%	59 36.9%	160 100.0%	
	전문기술직	32 51.6%	2 3.2%		1 1.6%	27 43.5%	62 100.0%	
	행정사무직	21 48.8%	3 7.0%		1 2.3%	18 41.9%	43 100.0%	
	판매 서비스업	12 42.9%			1 3.6%	15 53.6%	28 100.0%	
	기타	34 51.5%		1 1.5%		31 47.0%	66 100.0%	
합계		208 51.6%	9 2.2%	3 0.7%	11 2.7%	172 42.7%	403 100.0%	

3. 두피·탈모관리 경험여부

연구 대상자들의 두피·탈모관리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은 경험이 없다 74.4%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다 2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결혼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전문 기술직 46.8%가 두피와 탈모관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과 전업주부, 행정사무직, 판매서비스업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별 두피와 탈모관리 경험여부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이 같은 결과는 오강수⁴³⁾의 관리경험이 없다 78.2%, 관리 경험이 있다 21.6%와

김수미⁴⁴⁾의 관리경험이 없다 78.4%, 관리 경험이 있다 21.6%와도 유사하며, 많은 여성들이 탈모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두피와 탈모관리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두피·탈모관리 경험여부

기준 \ 문항		없다	있다	합계	$\chi^2(df)$
연령	20대	77 73.3%	28 26.7%	105 100.0%	0.127 (2)
	30대	83 75.5%	27 24.5%	110 100.0%	
	40대	140 74.5%	48 25.5%	188 100.0%	
결혼 상태	미혼	89 70.1%	38 29.9%	127 100.0%	1.855 (1)
	기혼	211 76.4%	65 23.6%	276 100.0%	
직업	학생	34 77.3%	10 22.7%	44 100.0%	20.957** (5)
	전업주부	129 80.6%	31 19.4%	160 100.0%	
	전문기술직	33 53.2%	29 46.8%	62 100.0%	
	행정사무직	35 81.4%	8 18.6%	43 100.0%	
	판매 서비스업	18 64.3%	10 35.7%	28 100.0%	
	기타	51 77.3%	15 22.7%	66 100.0%	
합계		300 74.4%	103 25.6%	403 100.0%	

**P<.01

43) 오강수, 「전계논문」, p.46

44) 김수미, 「미용실 전용 두피·탈모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72

4. 연령별 가장 만족한 관리 서비스

두피·탈모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연구 대상자 중 연령별로 가장 만족한 두피·탈모 관리 서비스 요인에 대한 결과는 [표 19]와 같이 관리효과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실의 서비스 9.7%, 관리자의 기술능력과 관리 프로그램 7.8%, 상담, 두피·탈모 관리시간 6.8%, 1회 관리시간 5.8%등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 관리비용 3.9%, 관리실의 분위기 2.9%, 관리용 기계설비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리효과에 가장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두피와 탈모관리의 경우 미용적인 측면과 의학적인 측면 모두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연구와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결과라고 사료된다.

5. 연령별 불만족한 관리 서비스

두피·탈모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연구 대상자 중 연령별 가장 불만족한 두피·탈모 관리 서비스 요인에 대한 응답은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리비용 57.3%로 가장 높았으며, 관리효과 14.6%, 관리자의 기술능력이 5.8%로 나타났으며, 1회 관리시간, 두피·탈모관리 기간, 상담은 4.9%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관리 프로그램, 관리용 기계설비1.9%, 관리실의 분위기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정애⁴⁵⁾두피·탈모관리 서비스 불만족 이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고가의 관리 관리비용 50.7%, 낮은 효과 19.3%, 많은 시간부담 12.2%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모발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두피와 탈모 관리는 최하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람의 심리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빨리 나타나거나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두피·탈모관리의 효과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고가의 관리비용으로 인해 두피와 탈모 관리 서비스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지속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두피와 탈모 관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관리비용의 대중화가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5) 전정애, 「전계논문」, p.97

[표 19] 연령별 가장 만족한 관리 서비스

문항	연령대	20대	30대	40대	Row total(%)
관리 비용			2 50.0% 7.4%	2 50.0% 4.2%	4 100.0% 3.9%
1회 관리 시간		2 33.3% 7.1%	1 16.7% 3.7%	3 50.0% 6.2%	6 100.0% 5.8%
두피·탈모관리 기간		3 42.9% 10.7%	1 14.3% 3.7%	3 42.9% 6.2%	7 100.0% 6.8%
관리 효과		13 27.1% 46.4%	11 22.9% 40.7%	24 50.0% 50.0%	48 100.0% 46.6%
상담		2 28.6% 7.1%	4 57.1% 14.8%	1 14.3% 2.1%	7 100.0% 6.8%
관리 프로그램		4 50.0% 14.3%		4 50.0% 8.3%	8 100.0% 7.8%
관비용 기계설비				2 100.0% 4.2%	2 100.0% 1.9%
관리자의 기술능력		2 25.0% 7.1%	3 37.5% 11.1%	3 37.5% 6.2%	8 100.0% 7.8%
관리실의 서비스		1 10.0% 3.6%	5 50.0% 18.5%	4 40.0% 8.3%	10 100.0% 9.7%
관리실의 분위기		1 33.3% 3.6%		2 66.7% 4.2%	3 100.0% 2.9%
Column total(%)		28 27.2% 100.0%	27 26.2% 100.0%	48 46.6% 100.0%	103 100.0% 100.0%
$\chi^2(df)$	18.658 (18)				

P<.05

[표 20] 연령별 불만족한 관리 서비스

문항	연령대	20대	30대	40대	Row total(%)
관리 비용		17 28.8% 60.7%	16 27.1% 59.3%	26 44.1% 54.2%	59 100.0% 57.3%
1회 관리 시간		1 20.0% 3.6%		4 80.0% 8.3%	5 100.0% 4.9%
두피·탈모관리 기간		1 20.0% 3.6%	1 20.0% 3.7%	3 60.0% 6.2%	5 100.0% 4.9%
관리 효과		2 13.3% 7.1%	7 46.7% 25.9%	6 40.0% 12.5%	15 100.0% 14.6%
상담		3 60.0% 10.7%	1 20.0% 3.7%	1 20.0% 2.1%	5 100.0% 4.9%
관리 프로그램				2 100.0% 4.2%	2 100.0% 1.9%
관비용 기계설비		1 50.0% 3.6%	1 50.0% 3.7%		2 100.0% 1.9%
관리자의 기술능력		2 33.3% 7.1%	1 16.7% 3.7%	3 50.0% 6.2%	6 100.0% 5.8%
관리실의 서비스		1 33.3% 3.6%		2 66.7% 4.2%	3 100.0% 2.9%
관리실의 분위기				1 100.0% 2.1%	1 100.0% 1.0%
Column total(%)		28 27.2% 100.0%	27 26.2% 100.0%	48 46.6% 100.0%	103 100.0% 100.0%
$\chi^2(df)$	16.106 (18)				

P<.05

6. 두피·탈모관리 장소

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두피·탈모관리 장소에 대한 응답은 미용실 이용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두피·모발 전문 관리센터 14.6%, 병원 8.7%, 피부 관리실 6.8%, 한의원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들이 두피와 탈모 관리를 위한 전문 관리실 보다 평소 이용 경험이 많은 미용실을 선호하는 것은 커트,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통해 자신의 두피 상황을 잘 아는 미용사를 통해 쉽게 찾아가거나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두피·모발 전문 관리실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지역의 특성상 두피와 모발 전문 관리실의 수가 미용실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것도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 두피·탈모관리 장소

기준	문항	두피와 모발 전문 관리센터	병원	미용실	피부 관리실	한의원	합계	$\chi^2(df)$
연령	20대	4 14.3%	2 7.1%	19 67.9%	3 10.7%		28 100.0%	3.281 (8)
	30대	3 11.1%	2 7.4%	21 77.8%	1 3.7%		27 100.0%	
	40대	8 16.7%	5 10.4%	31 64.6%	3 6.2%	1 2.1%	48 100.0%	
결혼 상태	미혼	7 18.4%	3 7.9%	24 63.2%	3 7.9%	1 2.6%	38 100.0%	2.773 (4)
	기혼	8 12.3%	6 9.2%	47 72.3%	4 6.2%		65 100.0%	

(표 계속)

기준	문항	두피와 모발 전문 관리센터	병원	미용실	피부 관리실	한의원	합계	$\chi^2(df)$
직업	학생	3 30.0%	2 20.0%	3 30.0%	2 20.0%		10 100.0%	22.827 (20)
	전업주부	6 19.4%	4 12.9%	18 58.1%	3 9.7%		31 100.0%	
	전문기술직	4 13.8%	1 3.4%	23 79.3%	1 3.4%		29 100.0%	
	행정사무직	1 12.5%		7 87.5%			8 100.0%	
	판매 서비스업		1 10.0%	9 90.0%			10 100.0%	
	기타	1 6.7%	1 6.7%	11 73.3%	1 6.7%	1 6.7%	15 100.0%	
합계		15 14.6%	9 8.7%	71 68.9%	7 6.8%	1 1.0%	103 100.0%	

7. 연령별 두피·모발 관리 인식도

연령에 따른 두피와 모발 관리 인식도에 대한 결과는 [표 22]와 같이 내 두피는 관리가 필요하다에 $F=6.458$ 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피 마사지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F=3.701$, 스트레스가 두피와 탈모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F=3.999$ 로 두 가지 모두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 모발은 관리가 필요하다에 대해 연령에서 가장 높은 F 값은 11.163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태로 나타나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을 연령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대에서 모두 $M=3.74, 3.84, 4.10, 4.51$ 로 30대와 40대 보다 두피와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가 30~40대에 비해 미디어 매체를 통한 정보와 교육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잦은 스타일 변화로 인해 두피와 모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 연령별 두피·모발 관리 인식도

문항	연령대	20대 (N=105)	30대 (N=110)	40대 (N=188)	전체 (N=403)	F
		M.±S.D.	M.±S.D.	M.±S.D.	M.±S.D.	
내 두피는 관리가 필요하다		3.74±1.04 a	3.49±0.99 ab	3.29±1.05 b	3.46±1.05	6.458 **
내 모발은 관리가 필요하다		3.84±0.97 a	3.43±0.99 b	3.27±1.02 b	3.46±1.02	11.163 ***
두피 마사지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4.10±0.86 a	4.07±0.83 a	3.86±0.83 b	3.98±0.85	3.701 *
두피의 청결이 탈모에 영향을 준다		4.02±1.01	4.03±0.97	3.93±1.04	3.98±1.01	0.469
식습관이 두피관리에 도움이 된다		3.90±1.02	3.86±0.92	3.87±0.92	3.87±0.95	0.038
건강상태가 두피관리에 영향을 준다		3.93±0.98	4.14±0.82	4.12±0.79	4.07±0.85	1.975
피머, 염색 등의 화학 시술이 두피관리에 영향을 준다		4.22±0.91	4.07±0.91	4.06±0.96	4.10±0.93	1.085
피머, 염색 등의 화학 시술이 탈모관리에 영향을 준다		4.01±1.03	4.06±0.91	3.95±0.91	4.00±0.94	0.547
가정에서 사용하는 두피모발용 제품이 두피관리에 도움이 된다		3.46±0.88	3.26±0.85	3.34±0.89	3.35±0.88	1.328
관리실에서 관리 받는 것이 두피·탈모 관리에 도움이 된다		3.89±0.85	3.72±0.83	3.78±0.86	3.79±0.85	1.087
스트레스가 두피·탈모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4.51±0.70 a	4.24±0.82 b	4.31±0.73 b	4.34±0.76	3.999 *
나는 앞으로 두피·탈모관리를 받아 볼 생각이 있다		3.70±1.00	3.39±1.06	3.48±1.00	3.51±1.02	2.569

*P<.05, **P<.01, ***P<.001, 던컨의 사후검정 결과는 a>b로 표시함.

8. 결혼 상태별 두피·모발 관리 인식도

두피와 모발 관리 인식에 관한 결혼 상태별 응답결과는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F값은 내 모발은 관리가 필요하다 $F=4.326$, 스트레스가 두피와 탈모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F=3.668$ 로 $P<.001$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내 두피는 관리가 필요하다 $F=2.296$, 퍼머, 염색등의 화학시술이 두피관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F=2.972$ 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피 마사지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F=2.346$, 나는 앞으로 두피와 탈모 관리를 받아볼 생각이 있다 $F=2.587$ 로 두 문항 모두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혼은 3.69, 3.77, 4.12, 4.30, 4.53, 3.70으로 기혼보다 미혼 여성들이 두피와 모발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별 두피와 모발관리 인식에 나타난 바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 결혼 상태별 두피·모발 관리 인식도

문항	결혼상태	미혼 (N=127)	기혼 (N=276)	F
		M.±S.D.	M.±S.D.	
내 두피는 관리가 필요하다		3.69±1.02	3.36±1.04	2.926 **
내 모발은 관리가 필요하다		3.77±0.97	3.32±1.02	4.326 ***
두피 마사지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4.12±0.79	3.91±0.86	2.346 *
두피의 청결이 탈모에 영향을 준다		4.07±0.95	3.93±1.04	1.296
식습관이 두피관리에 도움이 된다		3.92±0.92	3.85±0.96	0.697
건강상태가 두피관리에 영향을 준다		4.02±0.89	4.10±0.83	-0.915

(표 계속)

문 항	결혼상태	미혼 (N=127)	기혼 (N=276)	F
		M.±S.D.	M.±S.D.	
피머, 염색 등의 화학 시술이 두피관리에 영향을 준다		4.30±0.87	4.01±0.95	2.972 **
피머, 염색 등의 화학 시술이 탈모관리에 영향을 준다		4.09±1.00	3.95±0.91	1.437
가정에서 사용하는 두피코발용 제품이 두피관리에 도움이 된다		3.45±0.86	3.30±0.88	1.552
관리실에서 관리 받는 것이 두피, 탈모 관리에 도움이 된다		3.83±0.85	3.77±0.85	0.729
스트레스가 두피·탈모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4.53±0.62	4.26±0.80	3.668 ***
나는 앞으로 두피·탈모관리를 받아 볼 생각이 있다		3.70±0.96	3.43±1.03	2.587 *

*P<.05, **P<.01, ***P<.001

위의 제5절 탈모관리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탈모상태에 대해 20대와 미혼, 학생은 탈모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령대가 높거나 기혼, 전문직이나 행정직, 판매서비스업 등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서 탈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자신감의 상실, 대인기피 현상 등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장에서 연구대상자들은 두피·탈모 관리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탈모의 경험은 있으나 전문적인 관리에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 중 두피관리 경험에 관한 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것은 두피 관리 효과에 높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높은 관리비용으로 장시간의 관리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두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비용의 절감이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피 관리의 장소로는 대부분 미용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미용실보다는 전문적인 관리센터 또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낮게 나타나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의식부족과 전문기관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조사 대상자는 20~40대 여성 403명 중 40대가 총 대상자의 46.7%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여부별로는 68.5%에 해당하는 276명이 기혼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39.7%에 해당하는 16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평균 수면 시간은 7~8시간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6시간이 40.2%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88.3%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8시간 사이의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피·모발 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두피상태는 정상두피의 인식이 높았고, 모발상태는 퍼머와 염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았으며, 자신의 모발 건강상태는 보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건성두피가 많아지고, 결혼 또는 사회활동의 가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두피는 건성화를 불러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발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20~30대는 퍼머에, 40대는 퍼머와 염색 등의 헤어스타일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피·모발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퍼머, 염색, 탈색을 하는 이유는 20~30대의 미혼과 학생, 직장인들은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이나 연령이 높고 전업주부 일수록 유행이나 이미지 변신 보다는 헤어스타일의 간편성과 지속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기능성 샴푸의 사용 등에 높게 반응 하고 있으며, 이는 미용기술의 발달과 마스크, 미용교육,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헤어디자이너의 조언 등으로 고객들이 두피와 모발 관리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셋째, 두피·모발 손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결과는 75%가 염색과 탈색이 손상을 주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의 연출 보다는 먼저 모발과 두피의 건강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이러한 건강유지를 위해 두피 모발 보호 및 재생전용 화장품의 인식과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대체로 건강한 20대 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두피 모발 관리를 위한 화장품을 선호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행이나 개성연출 보다는 건강한 모발이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변화로 보이는데, 이것은 최근 여성의 사회 활동과 더불어 자기관리와 정보수집기회의 확대, 교육과 관리기회의 확대가 늘어가고 변화되어가는 긍정적인 결과로 사료된다.

탈모관리 인식 및 탈모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혼과 20대, 학생은 탈모가 없다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연령대가 높거나 기혼, 전문직이나 행정직, 판매서비스업 등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서 탈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자신감의 상실, 대인기피 현상 등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탈모의 경험은 있으나 두피·탈모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에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 중 두피관리를 경험한 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것은 두피 관리 효과에 높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높은 관리비용으로 장시간의 관리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두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비용의 절감이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피 관리의 장소로는 대부분 미용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미용실보다는 전문적인 관리센터 또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낮게 나타나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의식부족과 전문기관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넷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 중 특별히 두피·모발 관리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에 관심이 많은 2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두피·모발 상태 및 관리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발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피의 건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두피·모발 관리의 올바른 방법과 필요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전문적인 미용서비스 기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들의 두피·모발 상태와 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이해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재는 미용 산업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기술과 많은 제품들이 개발 되었지만, 이러한 열기구와 화학제품의 과도한 시술과 잘못된 사용습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모발 손상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전문 관리실 이용이 일반화 되며 많은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는 시대이나, 본 연구에서는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두피 모발 관리를 위한 전문 관리실이나 관리사와의 상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두피·모발 전문 관리실 보다 이용횟수가 잦은 미용실에서 두피·모발 관리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이는 두피·모발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및 소비 도시와는 달리, 본 연구 대상자를 경기지역의 특정 연령대로 제한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나 생활환경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들은 연구결과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한다. 설문 응답자 중 많은 여성들이 주부들이었고, 또한 경기지역에 있는 미용실 분포에 비해 두피 관리실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용실과 같은 일반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관리비용 절충과,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의 기본 특성을 숙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임상학적 접근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만족스러운 미용서비스 분야의 영역을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갑연 외, 『모발 및 두피관리학』, 서울: 광문각, 2004
- 김경순 외, 『모발관리학』, 서울: 청구문화사, 2002
- 김광옥 외, 『두피·모발관리를 위한 트리콜로지스트 입문서』, 서울: 도서출판 청람, 2005
- 김미선 외, 『The Hair Coloring』, 서울: Yelim, 2002
- 김명숙, 『피부 관리학』, 서울: 현문사, 2001
- 김민정 외, 『모발 및 두피관리』, 서울: 도서출판 예림, 2005
- 김순옥 외, 『미용 영양학』, 서울: 수문사, 2003
- 김영숙, 『두피 모발 관리학』, 서울: 대경, 2005
- 김영숙 외, 『두피모발 마사지방법론』, 대전: 대경, 2006
- 김종배 외, 『모발 미용학개론』, 대전: 이화, 2004
- 노정애 외, 『Permanent Wave Design』, 서울: 고문사, 2005
- 곽형심 외, 『모발·두피 관리학』, 서울: 청구문화사, 2004
- 곽희진 외, 『미용과 영양』, 서울: 청구문화사, 2001
- 대한두피탈모전문가학회, 『탈모클리닉 실전 바이블』, 서울: 대한의학서적, 2006
- 대한미용교수협의회, 『TRICHOLOGY』, 서울: 청구문화사, 2007
- 류은주 외, 『모발 미용학 개론』, 서울: 이화, 2004
- 류은주 외, 『모발미용학의 이해』, 서울: 신아사, 2009
- 문영숙 외, 『모발과 두피관리 입문』, 서울: 훈민사, 2008
- 박영숙 외, 『두피모발 관리학』, 서울: 훈민사, 2006
- 송지형 외, 『TRICHOLOGIST EDUCATION BOOK』, 국제두피건강협회, 2007
- 서윤경, 『모발과학의 기초』, 서울: 도서출판 예림, 2008
- 윤천성 외, 『모발과 두피관리』, 서울: 훈민사, 2004

- 은희철 외, 『모발생물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오경은 외, 『모발관리 이론 및 실습』, 서울: 수문사, 2001
- 이성옥 외, 『두피 관리』, 서울: 정담미디어, 2005
- 이의수, 『모발과학』, 서울: 도서출판 현문사, 2005
- 이원경, 『모발미용학』, 서울: 청구문화사, 1998
- 이향옥, 『Hair Advantage』, 서울: 창솔, 2004
- 이은미 외, 『모자라는 탈모책』,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2006
- 장미희 외, 『모발관리 & 가발』, 서울: Ye lim, 2003
- 전세열 외, 『모발 & 두피관리학』, 서울: 광문각, 2006
- 조성일 외, 『두피 & 탈모관리학』, 서울: 리그라인, 2006
- 조정애 외, 『Hair & Hair Care』, 서울: 훈민사, 2003
- 최근희 외, 『모발 과학』, 서울: 수문사, 2001
- 최근희 외, 『모발관리 이론 및 실습』, 서울: 수문사, 2001
- 하병조 외, 『TRICHOLOGIST . 1』, 서울: Ye lim, 2006
- 한국모발학회, 『두개피 육모관리학』, 대전: 이화, 2006
- 황순희, 『미용학 개론』, 서울: 청구문화사, 1996

2. 국내 학위 논문

- 강경하, 「여성들의 모발손상에 대한 의식형태와 관련요인 조사」, 대구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강연화, 「두피 및 탈모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경란, 「두피 및 모발관리 관련 미용업소의 실태 및 이용고객의 태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경숙, 「민감성 두피의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약학식품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김리라, 「여대생의 모발미용 관리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 김명우, 「전업 주부들의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김미옥, 「모발 및 두피의 손상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수미, 「미용실 전용 두피·탈모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우정, 「수도권지역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한성 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주영, 「두피 마사지가 스트레스 상태의 자율신경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문영란, 「직장인의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3
- 박정란, 「서울 시내 일부 대학생의 건강에 관한 지식·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변승환, 「여성들의 모발 미용 기술 및 모발 건강관리 실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오강수, 「두피 및 모발관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오은정, 「여성노인의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와 미용기술이 자존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윤주화, 「한국 여성의 두피 및 모발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산업
정보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이방실, 「두피·모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전정애,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숙명여자
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남춘, 「탈모자와 일반인의두발상태 및 관리, 식습관, 스트레스 정도, 가족력에
대한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HANSUNG
UNIVERSITY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귀하의 두피·모발 손상원인과 관리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모발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학문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지도교수 : 최 근 희

연구자 : 신 옥 남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세)
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전업 주부 ③ 전문 기술직 ④ 행정 사무직 ⑤ 판매 서비스업
⑥ 기타
5. 귀하의 평균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시간 미만 ② 5~6시간 ③ 7~8시간 ④ 9~10시간 ⑤ 11시간 이상

II. 다음은 귀하의 두피·모발 상태와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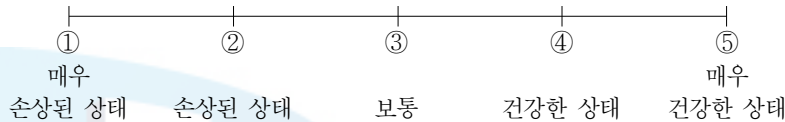
1. 현재 귀하의 두피 상태는?

- ① 정상 ② 지성 ③ 건성 ④ 예민성 ⑤ 잘 모르겠다

2. 현재 귀하의 모발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자연모발 상태 ② 코팅 및 헤어 매니큐어만 한 상태
③ 염색 또는 탈색만 한 상태 ④ 퍼머와 염색을 한 상태
⑤ 퍼머만 한 상태 (웨이브, 매직, 디지털, 세팅 퍼머 등)

3. 현재 귀하의 모발 건강은 어떻습니까?



4. 귀하가 미용실에서 주로 받는 시술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커트 ② 퍼머 ③ 염색·탈색 ④ 드라이 ⑤ 모발 관리(맞사지)
⑥ 두피 관리(맞사지)

5. 퍼머, 염색, 탈색 등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나만의 개성을 연출하기 위해 ②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
③ 유행을 따라 하기 위해 ④ 헤어스타일의 간편성 및 지속성을 위해
⑤ 주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⑥ 기타 ()

6. 퍼머, 염색, 탈색 시술 후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번으로)

7. 경험했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모발이 갈라지거나 끊어지거나 변색됨 ② 두피에 각질이 일어남
- ③ 두피가 가렵거나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림
- ④ 눈 주위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생김
- ⑤ 눈이 가렵거나 따가웠음 ⑥ 이마 주위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생김
- ⑦ 탈모가 생김 ⑧ 현기증 ⑨ 구토 ⑩ 기타

8. 미용실은 몇 개월에 한번 씩 이용하십니까?

- ① 1~2개월 ② 3~4개월 ③ 5~6개월 ④ 기타

9. 미용실에서 2가지 이상의 시술을 동시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거의 하지 않는다

10. 미용 시술 중 두피나 모발손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커트 ② 퍼머 ③ 염색 · 탈색 ④ 드라이 ⑤ 코팅 및 헤어매니큐어

11. 퍼머, 염색, 탈색 후에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기 위한 트리트먼트를 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전혀 하지 않는다
- ④ 퍼머, 염색, 탈색 직후에만 한다

12. '모발의 건강 유지'와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발의 건강 유지 ②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③ 잘 모르겠다

13. 귀하의 샴푸횟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일 ② 2~3일에 한번 ③ 기타

14. 귀하는 어떤 종류의 샴푸제를 사용하십니까?

① 기능성 샴푸(지성용, 건성용, 비듬용, 산성샴푸 등) ② 일반 샴푸(아무거나 사용한다)

③ 샴푸 린스 겸용샴푸(한번에 쉽게 하기 위함)

15. 샴푸 후 모발을 건조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① 드라이기의 온풍을 이용해 건조 ② 드라이기의 냉풍을 이용해 건조

③ 드라이기의 온풍과 냉풍을 이용해 건조 ④ 자연건조

16. 귀하의 두피 · 모발에 대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해주세요)

① 힘없이 얇고 가는 모발 ② 비듬과 가려움증 ③ 기름진 두피

④ 푸석이고 윤기 없는 머릿결 ⑤ 새치나 흰머리 ⑥ 탈모 ⑦ 기타

17. 귀하는 두피 · 모발 클리닉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잘 모른다

18. 귀하는 두피 · 모발관리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로부터 얻으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① TV ② 잡지 ③ 신문 ④ 서적 ⑤ 인터넷 ⑥ 미용실

⑦ 직장동료 ⑧ 두피 · 모발관리 전문 센터 ⑨ 병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⑩ 가족 ⑪ 친구

19. 귀하는 귀하의 모발이 손상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빈번한 시술 ② 잘못된 제품시술 ③ 영양섭취의 불균형 ④ 잦은 샴푸

⑤ 헤어드라이 등 열기구사용 ⑥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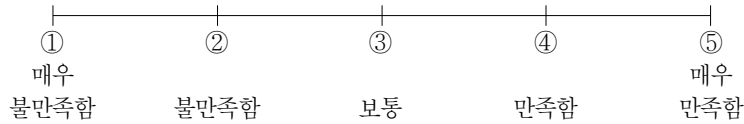
20. 귀하는 두피 · 모발 화장품(샴푸, 린스 포함)을 사용할 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 귀하는 두피 · 모발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두피 · 모발 전용 화장품을
사용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4번으로)

22. 두피 · 모발 전용 화장품(샴푸, 린스 포함)을 사용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23. 귀하께서 두피 · 모발관리 화장품(샴푸, 린스 포함)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손상된 두피 · 모발을 재생시키기 위해 ② 비듬을 완화시키기 위해
③ 두피 ·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④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
⑤ 전혀 사용하지 않음

24. 귀하께서 느끼는 본인의 탈모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있다 ③ 탈모가 심하다

25. 귀하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탈모가 미치는 영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실 ② 연애/결혼을 위한 이성교재의 어려움
③ 사교/ 친목활동의 기회 제한 ④ 우울증 ⑤ 정신적인 스트레스

26. 귀하께서는 두피 · 탈모관리를 받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27.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 두피는 관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모발은 관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두피 마사지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두피의 청결이 탈모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식습관이 두피관리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건강상태가 두피관리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퍼머, 염색 등의 화학 시술이 두피관리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퍼머, 염색 등의 화학 시술이 탈모관리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정에서 사용하는 두피모발용 제품이 두피관리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관리실에서 관리 받는 것이 두피·탈모 관리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스트레스가 두피·탈모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앞으로 두피·탈모관리를 받아 볼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두피 및 탈모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해주시요.

1. 두피·탈모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① 관리 비용 ② 1회 관리 시간 ③ 두피·탈모관리 기간 ④ 관리 효과
 ⑤ 상담 ⑥ 관리 프로그램 ⑦ 관리용 기계설비
 ⑧ 관리자의 기술능력 ⑨ 관리실의 서비스 ⑩ 관리실의 분위기

2. 두피 · 탈모관리 서비스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족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① 관리 비용 ② 1회 관리 시간 ③ 두피 · 탈모관리 기간 ④ 관리 효과
⑤ 상담 ⑥ 관리 프로그램 ⑦ 관리용 기계설비
⑧ 관리자의 기술능력 ⑨ 관리실의 서비스 ⑩ 관리실의 분위기

3. 귀하께서 최초로 두피 · 탈모관리를 받으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가려움 ② 비듬 ③ 스트레스 ④ 탈모 ⑤ 두피 · 모발의 건강을 위해

4. 귀하께서 두피 · 탈모관리를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두피 · 모발 전문 관리센터 ② 병원 ③ 미용실 ④ 피부 관리실
⑤ 한의원

5. 두피 · 탈모관리 비용으로 1회 평균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 ① 2만원 이하 ② 3~4만원 ③ 5~7만원 ④ 7~10만원
⑤ 10~15만원 ⑥ 15~20만원 ⑦ 20만원 이상

6. 현재 두피 · 탈모관리를 받고 계신다면 앞으로 관리를 얼마나 지속하시겠습니까?

- ① 3개월 이상 ② 6개월 이상 ③ 1년 이상 ④ 효과가 있는 한 계속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reatment of Scalp and Hair in the Women

Shin, Ok Nam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objective ground relevant to the condition & care reality, the recognition, and the service use on scalp·hai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argeting 105 people in their 20s, 110 people in the 30s, and 188 in the 40s among 403 women in their 20s~40s.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February 10, 2010 to March 15.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calp condition and the care reality, which are perceived by research subjects, a type of scalp was high in recognition of normal scalp. The hair condition was large in a condition of perm and dyeing. The condition of own hair health was indicated to be the largest in moderate.

Second, in the reality of scalp·hair care, a reason for perm, dyeing, and

bleaching was large in the response as saying of the aim at simplicity and durability in hair style. Side effect caused by this was indicated to be large in women without experience.

Third, in the scalp·hair care, the frequency of using beauty salon was the largest in respondents as saying of being 3~4 months. Performance, which is thought to have influence upon damage in scalp and hair, was indicated to be the highest in dyeing and bleaching. Also, treatment after perm, dyeing and bleaching was indicated to be done sometimes.

Fourth, as for shampoo of being used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s' condition of scalp·hair care, the use of functional shampoo agent was large. As for a method of drying hair after having a shampoo, the dry of using warm air was indicated to be high. Thus, many women were indicated to fail to greatly recognize the hair damage according to a drying method after having a shampoo.

Fifth, as a result of analyzing recognition on scalp·hair damage, the performance that is thought to have influence upon damage was the largest in respondents of recognizing it as dyeing and bleaching. Compared to producing beautiful hair style, the maintenance in hair health was indicated to be recognized to be more important. The use of the exclusive cosmetics for protecting scalp and hair was indicated to be much.

Sixth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ervice use of scalp & hair-loss care, people of having experience had many cases of having ever received care at beauty salon,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experience on scalp·hair-loss care. An opportunity of having come to receive scalp·hair-loss care was indicated to receive care for health in scalp·hair. Among research subjects who have experience of having ever received scalp·hair-loss care, the most satisfactory care service was surveyed to be the care effect. The unsatisfactory reason was indicated to be the cost of care.

The influence that hair loss has upon social life was indicated to be the highest in the loss of self-confidence in appearance. Thus, self-confidence could be

known to be much shrunken due to hair loss.

In case of survey subjects who are receiving scalp·hair-loss care now, the number of respondents as saying of desiring to continue to receive care as far as there is effect was shown to be the highest, to the question about the appearance of future continuance. Thus, it could be seen to be positive result that many women's interest in scalp·hair-loss care gets higher.

